

코스피	2599.62 (+28.92)	코스닥	745.19 (+6.85)
금리 (미국 9년)	2.936 (-0.007)	환율 (원-달러)	1382.40 (+2.30)

100조 간접지원 카드 꺼낸 野... 장기적 경쟁력 강화 효과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

〈中〉 정치권, 지원법안 경쟁 與, 직접 보조금 투입 방안 발의 野, 세액공제 등 정책금융 강조 전문가 “직접 보조금은 이례적 특정분야 투자, 시장경제 어긋나”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달리 여당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정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안은 이례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野,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곧바로 반도체 산업에 시설투자 등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대규모의 간접지원안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 기금 조성 과 특별 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은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씩 올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높인다. 대규모의 정책금융이 기업에게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태년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처에서 (대규모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금융안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분야에만 직접 보조를 했을 경우엔 타 산업 분야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 가능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산업부는 동의하는 분위기고,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재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제 측면에선 어울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논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선 기업과 시장이 판단해서 투자처를 찾고 정하는 것



메트로경제 ‘2024 제약·바이오포럼’ 성료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순진영 기자 son@

이지, 국가가 반도체 등 특정분야에 투자하라고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트렌드인데, 이제는 세액공제를 넘어서 국가가 정한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하디”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 지하화 37만평 규모 초대형 녹지 만든다

경부선·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 대규모 녹지네트워크 공원으로 조성 역사부지, 매각전체 입체·복합개발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선로부지(122만㎡)는 약 37만평 규모의 초대형 녹지로 만들고, 철도 역사부지(171만5000㎡)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신(新) 경제 코어를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지상철도 전체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경부선 일대 34.7km, 경원선 일대 32.9km, 총 67.6km 구간의 선로부지를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개발 용지로 창출해서 도시·역세권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발전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구간을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

능해진다. 시는 선형의 선로부지는 초대형 녹지로 바꾸고, 역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입체·복합개발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한 171만5000㎡ 크기의 상부공간(역사부지)은 업무·상업·문화시설로 복합개발해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로 총 25조6000억원(경부선 약 15조원+경원선 10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기로 했다.

시가 추산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총 31조원(경부선 약 22조9000억원·경원선 8조1000억원)이다. 개발 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 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개발 이익 부족시 사업비를 국·시비로 메우게 되느냐”는 질문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사업비는 가급적 많이 잡고, 개발 이익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가 재정 내지 시비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 국·시비에 대한 부분도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3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 주택용은 동결

민생·자영업 상황 종합적 고려 대기업 10.2% ↑, 中企 5.2% ↑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위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전기요금을 인



상했다. 또 한전의 자산매각,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4년 한전의상반기누적적자는 연결기준 약 41조원,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2023년 연결기준 약 122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2차관(사진)은 “에너지를 맡은 차관으로서 오늘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2년에 걸쳐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아직 한전 경영 정상화는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정부와 한전은 민생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정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계약전력 300킬로와트(kW)이상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요금은 현재 164.6원/kWh에서 24일부터 10.2% 인상된 181.5원/kWh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기존 168.9원/kWh에서 5.2% 오른 177.4원/kWh이 적용되면서, 대기업용 요금은 중소기업용 요금을 앞지르게 된다.

이에 따라 종별로 산업용(을) 이용 대기업은 연평균 1억1000만원 내외,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연간 평균 100만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윤-한 면담 겨냥 “아쉽고 안타깝다... 정치 복원해야” /사진 뉴스스
▲ 민주당 “‘친韓’이 제시한 김건희 특검 제3차 추천안, 논의해볼 가치 있다”

▲ 추경호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 절차와 시간 필요” 한동훈에 “선긋기”
▲ 조국 “윤석열·김건희는 권력 공동체... 무도한 권력 끌어내리는 것은 정당방위”



▲ 박찬대 “검찰,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 대신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 /사진 뉴스스
▲ 김태홍 “여당 대표가 언론에 다 떠들고 만나자는 것은 대통령 향한 협박”

금값 연일 신고가, 1년새 1.5배 꺾충... 추가상승 여력 충분

이스라엘-하마스, 우-러 전쟁에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점점 상승 45년만에 최고상승률 기록할 수도

금 가격이 1년 만에 1.5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을 신호탄으로 상승을 시작한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박빙 양상인 미국 11월 대선 등을 이유로 '안전자산'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온스당 2759.8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전일보다 0.76%(20.9달러) 상승했다. 금 가격은 지난 17일 사상 최초로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한 이후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초(온스당 2083달러) 대비 676.8달러(32.4%) 급등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5일(온스당 1831.8달러)과 비교해선 928달러(50.7%) 올랐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스시스

현재의 가격 상승 추이가 이어진다면 국제 금 가격은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1979년(연간 133.41% 상승) 이후 45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통상 전쟁 발발, 금리 정책 불투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빠

르게 상승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촉발됐던 금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산 우려, 혼전 양상으로 치닫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계속되고 있다.

이달 초 개전 1주년을 맞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지난 16일 이스라엘군의 야하야 신와르 하마스 지도자 사살에도 교전이 계속되며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으며, 레바논, 이란 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로 확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지 못하며 점차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쟁 장기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진행되는 미 대선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현 부통령에 대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 하에 박빙 양상을 이어가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규제 축소,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

션 제어와 물가 안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연방 정부의 국제 발행이 늘고 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금 가격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 건재한 만큼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관리 기업 SIA 웰스의 콜린 치에진스키 전략가는 "금은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미 연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화정책으로 선회했고, 이에 따라 귀금속 가치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기업 알터베스트의 마이클 암부르스터 공동창립자는 "금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상한선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다"라며 "가격 상승 원동력은 변함이 없고, 통제 불능(out-of-control)인 연방 지출은 궁극적으로는 연준에 달러 평가 절하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배추 계약재배 10% ↑... 김장채소 40% 할인

민당정,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배추 공급물량 10%·무 14% 확대 온라인몰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파는 울가를 김장재료가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40%까지 할인된다. 정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배추, 무 공급 물량도 각각 10%, 14% 확대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김장재료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구매하는 매주 1인당 마트 등은 2만 원, 전통시장은 3만 원이다.

같은 기간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 용 돼지고기 역시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최대 20% 넘게 싸게 판매한다. 천일염

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 페스타' (11월 20~30일)를 열어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주요 품목의 공급 안정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1년 전에 비해 10% 늘려 2만4000톤(t)을 공급한다. 이는 김장 성수기에 가락시장에서 28일간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 1000t가량을 비축해 우천 등으로 인한 일시 공급 부족에 대응한다. 또 가정 수요 집중기에는 김치업체의 물량 확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늘려 9100t을 공급한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t을 도매

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배는 폭염 피해와 1만t을 푸레 등 가공품으로 공급하고, 천일염은 5000t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직접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김치·양념채소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김장철 거래량이 증가하는 채소류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세부과제 추진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김포족이 늘어나고 있다. 김장 포기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소비자심리지수 101.7... 1.7p '소폭 상승'

한은, 10월 소비자동향조사 생활형편·향후경기 전망 등 ↑ 주택가격전망 전월비 3p 하락

앞으로 1년뒤 물가를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나 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채소류 가격이 높고,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년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들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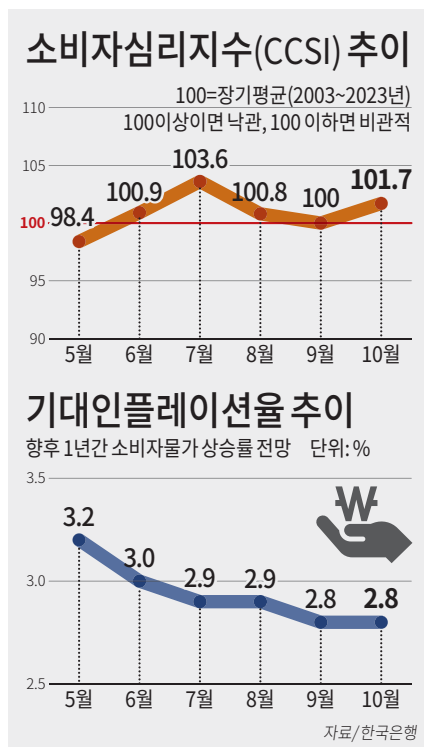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7로 한달전과 비교해 1.7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90)은 전월과 동일했으나 생활형편전망(96)은 2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99)과 소비지출전망(109)은 각각 1p 올랐다. 경제경기판단(73)과 향후경기전망(81)은 각각 2p 상승했다.

그외지수를 살펴보면 주택가격전망(116)이 한달 전과 비교해 3p 낮아졌다. 주택가격전망은 100보다 큰 경우 상승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100보다 낮을 경우 하락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여전히 100보다 커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는 많지만 지난달보다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 장기평균은 107인데 (10월 수치는) 이보다 높다"며 "최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보면 아직은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지만 다소 주춤하는 추이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뒤 물가수준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과 동일했다.

1년뒤 소비자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비중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61.2%)로 전월과 비교해 7.4%p 올랐다. 공공요금은 50.5%로 전월에 비해 6.8%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이 이달부터 정식으로 공포하는 3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나타났다.

3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개월~36개월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8개월~60개월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조사한 집계치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부 투자유도, 산업혁신 실증적 증거 없어"

>> 1면 '100조 간접지원 카드...'서 계속

이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등 몇몇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반도체를 찍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니 삼성전자가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일부 '셋다운'에 돌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투자유도가 산업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

증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쟁국보다 우리가 세액공제는 많은 편이고 보조금은 없는 편"이라며 "세액공제를 더 늘리기보다 낮은 수준인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 직접 보조금 난색 표하자, 우회 방법 고민

여당은 부처가 직접 보조금을 반도체 특별법에 담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은 전날(22일) 친한(친한동훈)계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특별법 직접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자'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준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부처가 대기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신세계, 파라마운트 IP 확보... '트랜스포머' 테마파크 만든다

(지식재산권)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체결
미션임파서블, 스타트렉 등 보유
일각선 수익·실현가능성 우려도



지난해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비전 선포를 하는 모습. /뉴스시스

“신세계그룹이 가진 모든 사업 역량을 쏟아부어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고 국가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말이다. 늘 변화를 강조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꿈이 또 한번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돔구장(멀티스타디움)과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 청라'에 이어 테마파크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처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와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테마파크를 만드는 이번이 첫 사례다.

파라마운트의 IP는 미션임파서블, 탑건, 트랜스포머, 네오마지 스폰지밥, নিজ거복이, 스타트렉 등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IP를 놀이기구, 프로그램 등에 결합해 프리미엄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약 4조5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내 약 36만 평 규모 부지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접목한 '스타베이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장은 2029년을 목표로 한다.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스타베이 시티' 단지 내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해당 사업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핸들링 할만큼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10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경기도 화성에서 파라마운트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정용진 회장은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어 국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며 “단순히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숙박, 리조트, 상업시설, 골프장, 주거단지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이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지는 테마파크 뿐만이 아니다.

정 회장은 프로야구 SSG 랜더스를 인수할 당시 스타필드 청라를 통한 '청라 돔구장' 설립에도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스타필드 청라를 “세계 최초, 최고의 대한민국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1년 내내 열리는 복합문화관람시설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결합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청라국제도시 지역 인근 15만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현재 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11일 지상층 건축변경 허가 절차도 마쳤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2027년 멀티스타디움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준공, 2029년 화성국제 테마파크에 국내 최초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만큼 사업 확장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그간 전무했던 글로벌 테마파크가 한국에 설립된다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실현가능성과 수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없던 테마파크가 설립된다는 건 무척 기대된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 좋은 기회다. 다만, 신세계가 다양한 규제 이슈를 극복하면서 목표에 맞춰 실현할 수 있을지와, 이에 따른 수익성이 잘 발생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류세 인하 폭 축소... 휘발유 1당 약 40원 ↑

경유·LPG 탄력세율 30%→23%
매점매석 행위 단속... 반출량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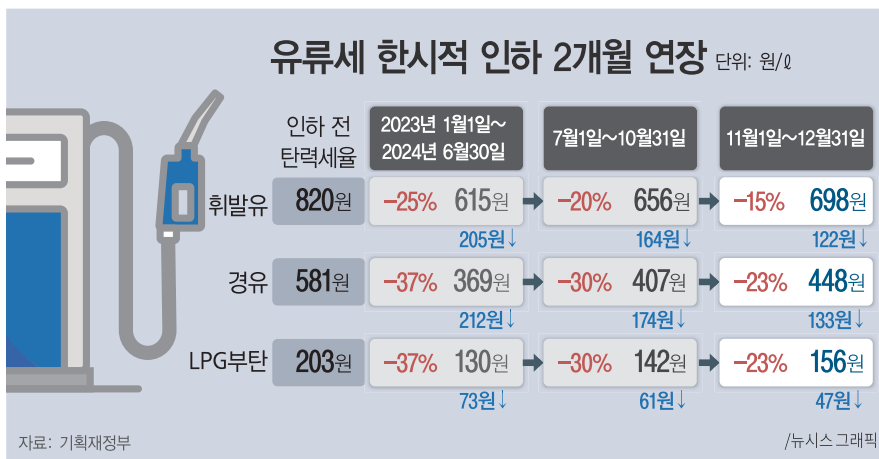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붙은 세금이 리터(1) 당 약 40원 오른다. 연료비 부담 상태에서 가득 주유(50~60리터) 시 2000~24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 폭은 각각 30%에서 23%로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조처는 이같이 할인율이 일부 환원된 채로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는 지난 2021년 11월 시행 이후 도합 12차례 연장됐다.

11월부터 세 부담 경감은 휘발유는 1리터당 122원, 경유는 1리터당 133원, LPG는 1리터당 47원으로 축소된다. 현행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



는 174원(30%) 내린 407원, LPG 부탄은 142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698원, 448원,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 달간 한 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리터당 1593.35원으로 집계됐다. 전일대비 0.45원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안정적인 흑자 유지할 수 있을 것”

>> 1면 '산업용 전기요금 9.7%'서 계속

2023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 전력사용량은 263테라와트시(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필수 전력설비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전력망 적기 확충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차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해 사재를 지속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정상화에만 기대지 않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

속적인 전력 구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번 요금 조정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대해 “LNG 가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해 수치를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안정적인 흑자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금리 부담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환율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크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28년 공사 착수, 2034년 지하화 완료”

>> 1면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서 계속

시는 서울역·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한 상부 개발 이익을 그간 지상 철도로 소외됐던 서남권과 동북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도 사업지 개발 계획을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안을 받아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시는 2028년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34년까지 철도 지하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어 2035년부터 2045년까지 약 10년간 상부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는 물음에 조남준 본부장은 “서울은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어느 정도 규모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전 구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조 본부장은 “경부선 일대에 대한 부분이 우선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

지역 간 이동자 급증... 순유입 1위 '경기'

통계청 9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
3년새 최대 폭 증가... 순유출 1위 서울

지난달 국내 지역 간 이동자 수가 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9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지난 2021년

9월 56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했다.

총 이동자가운데 시·도내 이동자 비중은 67.1%, 시·도간 이동자는 32.9%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내 이동자는 2.7% 증가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3.8% 증가했다.

지난 9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순유입된 곳은 경기(4659명), 인천(1809명), 충남(718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을 보였다. 반면 서울(-4300

명), 부산(-1127명), 경북(-88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7월 주택매매가 증가한 것이 9월에 반영되면서 인구이동이 늘었다”며 “전입신고서에 작성된 서울에서 경기 등으로 이동하는 사유를 보면, 직업과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나가는 서울 밖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9%(1124명)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TV 왕좌 노려라”... 삼성·LG, 초대형·OLED로 글로벌 공략

어닝쇼크, 모니터로 반전 모색

삼성, FAST 서비스 글로벌 확장
80인치 등 초대형 TV로 시장 선점
LG, OLED 모니터 게이밍 시장 공략
웹OS 기반 스마트 TV 생태계 강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나란히 '어닝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TV 모니터가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과 LG는 고사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니터를 적극 출시하면서 세계 TV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TV 운영체제(OS)를 고도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 역량을 강화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삼성은 내년 초대형 TV 제품군으로 매출 규모를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23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OLED 모니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44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1.5인치 모델이 새롭게 출시된 데 이어 게이밍 모니터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체 OLED 시장 점유율이 50% 넘길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49인치 모니터의 높은 판매량으로 시장 점유율 31%를 확보하며 독보적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34형 제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49형, 올해 27형 등 다양한 제품군



T1 선수단이 삼성전자 OLE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올레드 G8(G80SD)'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을 선보였다. 특히 삼성전자의 '오디세이 OLED' 모니터 신제품은 출시 한달 만에 총 2만대 이상이 판매된 바 있다.

LG전자 또한 제품 라인업 확장과 충분한 패널 공급망으로 19%의 점유율 2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는 고사양 게이밍 모니터 OLED 패널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이 초대형 TV를 내놓으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실제 80형 이상 TV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처음으로 TCL에 1위를 빼앗겼다. 그 뒤를 또 다른 중국업체인 하이센스가 바짝 추격하며 LG전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초대형 TV를 내놓으며 중국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삼성전자의 80인치 이상 초대형 T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판매된 삼성전자의 TV 제품군 중 75인치(189cm) 이상 TV 비중은 전체의 약 45%로, 이 중 80인치 이상 TV의 판매 비중은 전체의 21%로 집계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내년 TV 신모델로 100형급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선보인다. 구체 라인업과 출시 시기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100형, 110형, 115형 가운데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밖에도 삼성과 LG는 웹(web) OS 고도화를 통해 TV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OS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LG전자가 지난달 27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webOS 서밋(Summit) 2024'를 개최했다. 박형세 HE사업본부장이 webOS 플랫폼 사업의 지난 성과와 중장기 사업 전략 및 미래비전 등을 발표하고 있다. /LG전자

서비스 강화로 생태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OS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서비스 확대를 통해 TV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글로벌 FAST 시장이 오는 2027년 약 120억 달러(약 16조원)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OS인 타이젠(Tizen)을 스마트TV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TV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드라마, 예능, 뉴스, 키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는 미국에서 CJ ENM, KT알파등 국내 콘텐츠미디어 기업들과 손잡고 약 4000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출시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K-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웹OS 플랫폼 매출의 1조원 돌파를 기대하면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비전 달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 플랫폼 사업역량을 강화한다. 박 본부장은 웹OS 플랫폼 사업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으로 ▲콘텐츠 경쟁력 및 편의성 강화 ▲TV 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스마트기기 등 웹OS 생태계 확대 ▲플랫폼 내 광고사업 경쟁력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성장성이 높은 게임 분야 서비스를 적극 확대한다. 현재 webOS에서 제공 중인 게임은 지포스 나우, 아마존 루나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인기 게임부터 캐주얼 게임까지 총 4500여개에 이른다. LG전자는 webOS TV로 즐기는 게이밍 경험을 지속 강화, 새로운 게이밍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지난달 'webOS 서밋 2024'에서 "webOS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서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네이버웹툰, 불매운동 확산... 이용자 감소·주주소송 위기 직면

여성혐오 논란·SNS 홍보조종 사태 韓·日 시장 위축, 북미시장 확장 시급

여성혐오 콘텐츠 방관 논란으로 시작된 네이버웹툰 불매운동이 공식 SNS의 불매운동 조종 논란까지 맞닥뜨리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2분기 이용자 감소가 확인된 후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 속에서 불매운동의 여파가 소송에까지 영향을 줄지 업계 안팎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아이지아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일간활성사용자(DAU·안드로이드)가 불매운동 직전주

220만~230만 명에서 불매운동 후 200만~210만 명 수준으로 10% 감소했다.

이번 네이버웹툰 불매운동은 지난 6일 웹툰 '이세계 풍풍남'이 네이버웹툰 주최 2024년 '지상최대공모전' 2기 1차 심사 통과 후 여성혐오 논란이 일며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공식 SNS가 16일 '불매'를 유머로 사용한 웹툰 홍보까지 진행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네이버웹툰 측은 지난 21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불매운동 관련 여론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일에 작품 마케팅 차원에서 제작해 활용했던 소재"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곤란하셨을 해

당 작품의 작가님을 포함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문 게재 후 226명의 웹툰작가가 모인 '웹툰작가 연합'까지 해당 홍보 게시물에 대해 "독자를 기만하고 작가의 신뢰를 무시했다"며 공식입장을 내 상황이 악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증권 소송 전문 로펌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불씨를 던질 것으로 보고 우려 중이다.

로펌 '로빈스 겔러 루드만&다우드', 'BG&C' 등은 현재 11월 초~중순을

기한으로 네이버웹툰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WB TN)이 상장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 지식재산권(IP) 사업 수익 둔화, 최대 시장인 한국·일본의 저환율이 수익성에 미칠 영향, 이용자 감소에 따른 광고 수익률 저조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적으로 보는 지점은 최대 시장인 한국과 일본의 이용자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광고수익 매출 상승세 둔화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대 시장인 한국과 일본의 이용자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의 매출 구조는 환율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달러 대비 원화·엔화의 약세가 장기화할 전망인 만큼 이를 상쇄할 만큼 두 시장에서 이용자를 확보하고 유료 콘텐츠 수익을 올려야 한다"며 "북미 시장 확장을 통해 달러 수익을 크게 확보하고 새로운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장기전력으로 수행해야 할 만큼 한국·일본 시장과 북미, 기타 지역 시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최상목 “주식시장 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뉴욕서 IB 대상 ‘한국 경제 IR’ AI·에너지 전환으로 성장동력 구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이른바 '밸류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투자은행(IB)인 JP모건, 모건스탠리, 뉴욕 멜론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고위급 임원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채권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제값 받기를 위한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 풍부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우수한 인공지능(AI) 생산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주재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

너지를 최대한 확충하겠다"며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 경제분야 갈등 관련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통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긴밀한 상호협력력을 기반으로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세계경제지수(WGBI) 편입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인정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전반적인 리뷰가 있을 예정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참석자들이 최 부총리의 설명회 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어떤 날, 어떤 투자도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매일매일 신투DAY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 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매체 별 차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3844호 (2024-09-23 ~ 2025-04-30)

‘빈손면담’에도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韓 “李 대표 재판결과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돼야 野 이사추천 전제조건 공감 어려워” 대통령실 “與野 합의 시 임명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요구 등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는 23일 ‘윤한 갈등’의 핵심인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요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관련 3가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의혹 사항별 설명 및 해소)는 물론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의 건의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버려야 한다

는 의미다.

한 대표는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소설 속 유토피아)’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선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 분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표의 행보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면담

음날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2명과 긴급 만찬 회동에서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주목된다. 친한계가 묻자면 ‘김건희 특검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에 한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전면전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한 대표가 ‘11월 15일 전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면담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 尹-韓 갈등 파고드는 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달 말, 내달 초 여야 대표 회동 전망
李 “정치 복원 될 수 있는 길 찾을 것”
韓, 특검법 합의 가능성 높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후에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한 갈등’을 파고들어 당정 간 틈새를 벌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표가 여야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틀 전(21일)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라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당정 간 갈등

등이라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균열을 더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빈손 면담’의 후폭풍이 일파

만파 커지고 있다”며 “당내 갈등 증폭되며 여론상황은 악화일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 차례 제기했던 김여사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당대표 회담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기반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선불리 추진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수진영의 분열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시도에도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떤 경우든 저희가 민주당과 손잡아서 대통령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친한계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양당은 조만간 2차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한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회담에 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대표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與 “연금개혁 협조요청” vs 野 “의대 증원·자동조정장치 변질”

복지위 국감

與, 연금특위서 野·정부 함께 논의
野, 김건희 여사 참여 행사 비용 지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갑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용산(대통령실)의 입김으로 모두 변질

됐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이 용퇴를 해야 한다”고 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를 결정)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빅 5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대기·연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가) 먼저 시도해야 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1억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물었다.

그는 “야외 행사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행사도 아닌데 2~3시간짜리 행사에 총 9700만원이 들었다”라며 “(예산으로 투입된)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행세를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전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응급실 기반 자

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 불용 예산액 20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했는데 과도하게 장식을 하는 행사는 아니었다. 올해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 관련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거나 국무위원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구 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가입 상한 연령 인상의 경우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등 특정 상임위와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특위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

담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해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을 넣어서 (수령액) 자동 삭감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 국민적 설득이나 홍보는 해달라”고 했다. /뉴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인생 계획 하나하나,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위한, 하나금융그룹만의 솔루션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노후 설계 상속·증여 가업 승계

전문가와의 1:1 맞춤 종합 솔루션 제공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핀크 |

입주 한 달 남았는데... '올파포' 공사비 갈등에 또 중단

(올림픽파크포레온)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시공사 조정 등 기반시설 비용 놓고 갈등 이미 오른 공사비, 해결책 없어 서울 정비사업장 곳곳 중단 예고

공사비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는 서울에서도 조합과 시공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약이 아예 해지되는가 하면 공사 중단 현수막이 붙었고,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까지 마친 올림픽파크포레온마저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시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엔 주변 도로와 조경 등을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시공사들과의 갈등이다. 공남공영과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3곳은 기간 연장에 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공사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전지원 기자

른 추가 공사비 170억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무려 1만2032세대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곳이다. 다음달 27일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까지 모두 끝낸 상태였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시공단과의 공사비 갈등으로 공

사가 중단된 바 있다.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준공 승인이 힘들어진다. 입주 지연은 물론 대출 등 자금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준공 승인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초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등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과 함께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

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향후가 아니라 이미 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해결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서울에서도 정비사업장 곳곳이 공사 중단을 예고한 상황이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 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 현장에는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시공사가 여러 차례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용산구 이촌동에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이촌르엘(이촌현대)'도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착공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며, 역시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강서구 방화6구역은 작년 4월 이주·철거를 마쳤지만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여성보험 명가' 한화손보, 성장 가속도

팜테크연구소 통한 상품 개발부터 출산 특화 사내복지제도 운영까지 女 친화 기조로 3분기 순익 83% ↑

한화손해보험이 대내외적으로 '여성 친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내부 기업 문화에서부터 여성 친화 기조를 다지면서 외부적으로는 '여성 전문 보험사' 타이틀을 굳히겠다는 포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임직원 대상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여성 친화 문화를 내부적으로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손보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와 '임직원 임신, 출산 특화 지원' 사내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빠휴가'와 '임신지원휴가'는 법정제도보다 많은 휴가일수를 부여한다.

아빠휴가는 배우자 출산 이후 법정 기준 외 6일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한다. 총 16일의 휴가를 부여해 부모 모두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취학전후 돌봄 휴가로 임직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최대 3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사내에는 전문보육기관 위탁을 통한 사내어린이집도 운영하

고 있다.

임직원의 임신·출산 특화 지원 제도로는 '맘 패키지(Mom's Package)'가 있다. 해당 제도로 임신부 직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업무지원 물품(손목보호대, 탄산장지크림, 임신부 전용 치약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임신지원 휴가도 제공해 기존 임직원에 안정적인 임신에 필요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남녀 모든 임직원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사내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 한화손보는 여성보험 명가(名家)로 통한다. 여성보험시장 선두주자로 지난해 금융업계 최초로 'LIFEP LUS팜테크연구소' 설립한 바 있다.

팜테크연구소는 리서치 분석기관에 의뢰해 '2030 여성 트렌드 분석'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당 분석 결과는 보험상품과 연계해 상품 및 특약에도 반영하는 등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팜테크연구소의 여성 연구를 바탕으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난임치료 보장 확대, 출산 후 보험료 납입

면제 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상품을 제공한다. 최근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배타적 사용권 4종을 추가했다. 신규 특약들은 올해 11월 선보일 신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팜테크연구소는 2030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전문 보험사로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보험 호조에 힘입어 한화손보의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엔 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손보의 올 3분기 별도기준 잠정 당기순이익은 938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82.9% 증가한 수치다.

SK증권은 한화손보의 올 3분기 순이익으로 1004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기준에 보장하지 않던 신규 담보를 출시하면서 선제적인 여성 보험 리딩에 나설 것"이라며 "타 보험사 대비 여성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인천 왕길동 화재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국민은행, 실질 재해피해 고객 대상 대출·우대금리·상환연장 등 지원

KB국민은행은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

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주기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청담 르엘' 조감도.

/롯데건설

우리은행,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레몬헬스케어와 '청구의 신' 제공

우리은행이 ICT 신기술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전문회사 레몬헬스케어와 손잡고 우리WON뱅킹에서 실손보험을 간편히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의 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청구의 신'은 레몬헬스케어와 제휴

되어 있는 병원의 3년간 진료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해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진료비 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고, 한번에 최대 10건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우리WON뱅킹 '청구의 신' 메뉴에서 'MY병원'에 자주 방문하는 병원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양사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로 ▲제휴병원 진료 예약 ▲비대면 의료 제증명 서류 발급 등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IT기술을 활용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편리한 보험 청구, 의료제증명 발급 등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롯데건설, 강남 '청담 르엘' 전세대 완판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내놓은 '청담 르엘'이 완판을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르엘'이 적용된 '청담 르엘'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정당계약, 22일 예비당첨자 동호회 추첨을 거쳐 전세대 계약이 완료됐다.

'청담 르엘'은 지난 9월 20일 1순위 청약에서 8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6717건이 접수돼 평균 66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 전날 받은 특별공급에서도 64가구 모집에 2만7070건이 접수돼 313.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지원 기자 jjw13@

로봇청소기 해킹 우려 확산... 韓, 보안 기술 경쟁력 강화

中 에코백스 '디봇 X2' 해킹 논란

국내 가전업계 데이터 보호 총력
삼성 자체 플랫폼 '녹스' 확대 적용
LG 표준 보안개발 프로세스 반영

최근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해킹되어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로봇청소기에 장착된 IP(인터넷) 카메라가 사생활 침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주요 가전업체들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사 제품에 적용된 첨단 보안 기술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ABC뉴스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가정집 곳곳에서 중국 에코백스사의 로봇청소기 '디봇 X2'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스웬슨은 외부인이 기기를 원격 조종하거나 기기를 해킹해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욕설을 하는



비스포크 시스템



LG전자

걸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가정에서는 로봇청소기가 반려견을 쫓아다니며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에코백스는 자체 조사 후 피해자들의 계정과 비밀번호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고, 해킹범의 IP 주소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코백스 측은 ABC뉴스를 통해 "에코백스 시스템이 침해돼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해킹의 원인이 자사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비밀번호

를 잘못 관리한 소비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IT 전문가들은 로봇청소기에 장착된 IP 카메라가 해킹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P 카메라는 가정집 돌봄용이나 상업·공공시설 등에 ব্যবহার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 유통된 IP 카메라 80%는 중국산"이라며 "중국산 IP 카메라는 제조사가 서버·기기에 사용자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백도어'를 숨어둔 제품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기들

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같은 우려 속에, 중국산 제품이 장악한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보안 경쟁력'으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 플랫폼인 '녹스(Knox)'를 통해 로봇청소기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녹스는 원래 모바일 보안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TV와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IoT 가전 기기에도 적용돼 전방위적인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녹스는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을 스마트싱스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며,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다중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때 보관된 데이터도 24시간 후 자동 삭제돼 사용자 사생활을 해킹 시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가 실시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획득하며 보안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LG전자 역시 자체 보안 시스템인 'LG 쉴드(LG Shield)'를 통해 IoT 소비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청소기에 고급 암호화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LG 표준 보안개발 프로세스(LG SDL)'도 로봇청소기에 적용해 데이터 유출방지에 힘쓰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데이터 암호화와 함께 사용자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철저한 보안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로봇틱스 분야 산-학-연 협력 고도화

'로봇틱스 공동 연구소' 설립
서울대, 포항공과대, KIST 참여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최고 로봇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로봇틱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현대차·기아는 서울대학교와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이동형 양팔로봇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로봇 연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로봇틱스 공동 연구실'을 설립했다고 2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산학협력 전문 기관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향후 3년 동안 로봇틱스 공동 연구실을 운영하며 이동형 양팔로봇의 기술을 내재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로봇 연구 기관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로봇틱스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기아 로봇틱스랩은 공동 연구실 내에서 로봇 하드웨어 분야를 맡는다. 로봇틱스랩은 개발중인 로봇 손이 더욱 복잡한 형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동형



(왼쪽부터) POSTECH 산학협력단 김종규 단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김영오 교수,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한국과학기술원 AI·로봇연구소 김익재 소장이 '로봇틱스 공동 연구실 설립'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양팔로봇의 자율 이동과 작업 수행능력을 진일보시키는 데 힘을 쏟는다.

서울대학교는 유리하고 투명한 물체를 조작하기 위한 로봇의 인식 기술을 확보하고 등록되지 않은 물체도 잡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한다.

POSTECH은 사람이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할 때 필요한 원격 햅틱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비정형 물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물 조작 인식 기술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탠다.

로봇틱스 공동 연구실은 국내 최고 로봇 연구 기관이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의미는 물론 로봇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들은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미래 서비스 로봇틱스 시장에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이동형 양팔로봇' 기술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 로봇 연구 기관들이 협력하는 만큼 기술을 고도화해 다양한 서비스로봇틱스 시장을 창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두산 하이엔드 CCL 대거 공개

㈜두산이 대만에서 하이엔드 CCL 마케팅 활동 강화에 나선다.

두산은 오는 2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난강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TPCA Show Taipei(대만 전자회로기판 박람회) 20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TPCA Show Taipei'는 전자회로기판(PCB) 및 회로설계, 반도체패키징 등과 관련된 대만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 두산은 ▲통신용 CCL ▲광모듈(Optical Module)용 CCL ▲반도체(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지용 CCL 등의 하이엔드(High-end) 제품과 함께 신사업인 미세전자기계시스템 발진기(MEMS Oscillator)도 선보인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인공지능 TV '생성형 배경화면' 선포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TV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인 '생성형 배경화면' 기능을 23일 한국에 선보인다.

적용모델은 2024년형 네오 큐엘이디(Neo QLED)와 QLED다. 생성형 배경화면은 이번 달 한국, 미국, 유럽 주요 국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생성형 배경화면은 타이젠 OS가 탑재된 삼성 AI TV에서 제공되는 생성형 이미지 제공 기능이다.

사용자의 다양한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한 이미지를 4K 화질로 제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삼성 AI 기술로 부자연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고려아연 "영풍·MBK 시세조종 행위 여부 조사해야"

금감원 진정서 제출... "가처분 악용"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부회장 등 영풍과 MBK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

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 및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

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며,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오직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당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다가오는 SDV시대... 사이버보안 인프라·공급망 보호 절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 개최
차량 보안기술·생태계 구축 과제
SDV 보안강화·인증체계 도입 방안
기술 평가 시스템 등 마련 필요성

모빌리티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SDV)의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자동차의 지향점, SDV(Software Defined Vehicle)와 사이버 보안 강화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국가기술표준원 최정찬 국가표준코디네이터의 'SDV 동향 및 표준화 대응' ▲현대오트모터 정지훈 차량전장SW센터장의 '차량전장 소프트웨어(SW) 관점에서의 SDV 기술 방향과 비전'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김봉섭 연구개발실장의 'SDV 지향 사이버 보안 기술 동향'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에 전시된 전기스쿠터, 리무진 골프카트 등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모습. /뉴스시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김봉섭 연구개발실장은 SDV 지향 산업 및 사이버 보안 기술 동향, 커넥티드 소프트웨어 무역장벽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봉섭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모빌리티 기술은 소비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차량 하드웨어 및 개별 소프트웨어 통제·제어 기능을 개선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차량용 운영체제 개발과 함께 중앙에서 전체 관리가 가능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로 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빌리티 기술의 중앙 집중화 시대가 오면 차량 내부 시스템 전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이 중요해진다. 이미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킹하는 RSA, ECU신호를 가로채는 TPMS·CAN 등의 해킹 접근 방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모빌리티 업계는 보안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SDV 세상에서 보안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SDV전장부품 보안평

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차량의 경쟁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센터 구축을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보안 인력양성 ▲보안 컨설팅 등 기술지원 ▲사이버 보안 기술 평가 및 인증 지원 ▲차량용 사이버보안 기술 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김봉섭 실장은 "자동차 산업은 기계, 배터리, 철강,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로봇, 방산, 조선 등과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고, 모빌리티 확장성 또한 매우 큰 산업"이라며 "SDV 지향 모빌리티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자립화, 보안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최정찬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며 "이러한 신산업의 형성에는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SDV를 둘러싼 표준 현황 및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오트모터 정지훈 차량전장SW센터장은 전자아키텍처 콘셉트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차량용 운영 체제(OS) 시장 구성과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별 OS 개발 및 채택 동향, 현대차그룹의 SDV 추진 방향 및 현대오트모터의 차량 OS 솔루션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오트모터는 차량용 운영체제 '모빌진 클래식2.0'을 개발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체계 오토모티브스페이스에서 레벨3를 획득한 바 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홍성수 교수는 "SDV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부품이 생산·검증·배포되는 과정에서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천만대의 SDV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망에 대한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프로TV 류종은 기사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SDV 기술력은 아직 표면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이 최근 2~3년 SDV 개념을 정립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 지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metroseoul.co.kr

“주행거리는 기본, 이젠 편의성까지 쟁겼다”

벤츠, 연식변경 모델 EQS 450+ 출시
배터리 용량 증대, 최대 주행거리 822km
DCU 시스템 적용 구동 방식 자동 전환

“전기차를 처음 선보인 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고급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주행거리와 편의 사양을 대거 향상시킨 플래그십 전차 세단 EQS 연식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이 차량은 연내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2일(현지시간) 독일 진델핑겐 차량 안전 기술센터에서 배터리 용량을 108.4kWh에서 118kWh로 늘려 주행거리를 822km(이전 753km)까지 확대한 연식변경 모델 EQS 450+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기존 주행 가능 거리가 683~822km였던 EQS 450+는 이제 800km 이상은 거뜬히 주행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슈테판 슈스터 EQS 홍보 담당 매니저는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플랫폼 EVA2 전체 라인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고객과 시장의



22일(현지시간) 독일 진델핑겐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안전 기술센터에서 만나 슈타이즐 EQS 제품 담당 매니저가 EQS 45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QS 450+는 배터리 효율성 개선을 통해 주행거리를 대폭 향상시켰다. 안나 슈타이즐 EQS 제품 담당 매니저는 “모든 EVA2에 히트 펌프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고 그 결과 주행거리는 10% 늘어났다”며 “사륜구동 시스템인 4매틱모델에는 DCU가 탑재되며 에너지 저장율은 16% 개선효과를 확보

했다”고 설명했다.

벤츠 전기차 DCU는 각 주행 상황과 요구되는 출력에 맞춰 자동으로 전륜 모터를 분리해 후륜 구동으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적재량이 적을 때 DCU는 전륜의 전기 모터와 변속기 작동을 멈춰 사륜구동에서 후륜 구동으로 전환한다. 또 히트 펌프를 적용해 전기 드라이브(인버터·전기 모터)와 고전압 배터리 폐열을 사용해 실내 난방도 가능하다. 히터에 필요한 배터리 전력이 줄고 주행 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2열 탑승자들을 위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뒷좌석 패키지는 버튼 하나로 등받이 각도를 27도에서 36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5mm 두꺼워진 시트 폼과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커버로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한다. 또 2열에 탑재된 버튼을 터치하면 전동으로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등받이도 앞쪽으로 접하며 훨씬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뒷좌석에는 열선이 있어 마사지 기능도 제공한다.

/진델핑겐(독일)=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개발자 생태계 확장 기대”

‘Q9’ SDK 이동형 AI홈 허브 공개

LG전자가 이동형 AI홈 허브 ‘Q9’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공개하며 AI 홈 시대 개방형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고 23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는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소스와 툴 모음으

로 이를 공개하면 누구나 다양한 맞춤형 앱을 만들 수 있다.

LG전자는 21~23일(현지시간) 덴마크 옌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로봇 콘퍼런스 ‘로스콘 2024’에 참가한다. 로스콘은 전세계 로봇 개발자들이 모여 최신 기술을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전세계 개발자들에게 Q9를 선보인다. Q9의 공감지능(AI)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했다. Q9 앱 개발을 위한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샘플 코드 등을 포함한 SDK를 공개한다.

LG전자는 SDK 공개를 계기로 외부 개발자들이 Q9의 기능을 활용하는 앱을 개발해 다양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AI 리스크 관리 체계 ‘카카오 ASI’ 구축

카카오, 안전한 AI 시스템 구축 지침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관련 위험요소 관리 체계 ‘카카오 AI 안전성 이니셔티브(카카오 ASI)’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 ASI는 AI 기술 개발과 운영상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침이다. 기술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업데이트 등 AI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AI와 인간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 요소를 폭넓게 관리하며 인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ASI는 ▲카카오 AI 윤리 원칙 ▲리스크 관리 사이클 ▲AI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카카오 AI 윤리 원칙’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카카오 그룹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회 윤리, 포용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이용자 보호 등 원칙을 포함한다. 개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관리 사이클은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접근법이다. 식별-평가-대응의 순환 단계로 구성된다. AI 기술의 비윤리, 불완전 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LGU+, 비지상 네트워크 활용 6G 백서 발간

‘위성 데이터센터’ 구축 가능성 제시

LG유플러스는 향후 상용화될 6G 이동통신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6G 백서-비지상 네트워크(NTN; Non-terrestrial Network)’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6G와 이전 세대 통신 기술의 가장 큰 차별점인 비지상 네트워크를 주제로 작성됐다. 지난해 발간된 6G 비전 백서에서 다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능화(Intelligence), 확장성(eXpansion) 등 핵심 비전을 구체화한 후속판이다.

6G 백서는 비지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통신 위성인 ▲저궤도 위성(LEO)

▲중궤도 위성(MEO) ▲정궤도 위성(GEO) 등을 활용해 기존 통신망의 한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통신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재사용 발사체 기술의 발전은 위성망 구축 비용을 절감해 보다 경제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위성간 통신(Inter-Satellite Link)’ 기술을 통해 통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초고속 전송이 가능해지는 등 위성 통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6G 시대를 지나 향후에는 위성망과 엣지 컴퓨팅을 결합한 ‘위성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성성호수공원 인접 '알짜배기' 아파트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GS건설

지상 39층 8개 동 총 1104가구 규모 조성
부대·업성·부성 지구 등 도시개발 '호재'

GS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 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를 다음달 분양한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39층, 8개 동으로 총 1104가구 규모다.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57가구 ▲84㎡B 325가구 ▲84㎡C 322가구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가 조성되는 성성8지구는 대규모 신혼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성성지구를 비롯해 부대지구, 업성지구, 부성지구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 계획된 상태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총 52만8140㎡ 규모(약 16만평)의 성성호수공원이 인접했다. 성성호수공원은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자연관찰교량인 성성물빛누리교 등 휴식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계획)가 예정됐고, 인근에 호수고등학교(계획)도 계획되어 있다.

교통환경도 좋다. 번영로, 삼성대로를 통해 천안 주요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고, 1번국도 및 천안IC, 경부고속도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마트 천안서북점, 코스트코 천안점 등의 대형마트가 근거리에 있고, 성성호수공원 아래 쪽으로 이미 형성된 성성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낮은 건폐율과 넓은 동간 거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전체 동에는 필로티 구조 설계가 도입돼 사생활 보호와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커뮤니티광장, 수경마당, 건강정원, 놀이마당, 유아 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을 도입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신작 도서가 채워진 대형서점 큐레이션 도서관을 비롯해 냉·온탕이 함께 구성되는 사우나, 스크린골프장이 포함된 골프연습장, 게스트 하우스, 필라테스 시설 등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8년 상반기 예정이다.



C2하우스 적용... '뉴홈' 선택형 단지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DL이앤씨

10개 동에 949가구... 2026년 12월 입주
동간거리 넓게 확보, 세대 간섭 최소화

DL이앤씨는 다음달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 H16 블록에 공공분양 뉴홈 단지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으로 총 949가구 규모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으며, 84㎡A와 84㎡B 타입이 각각 728가구, 221가구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다. 거주 기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는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내포신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다.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DL이앤씨의 특화 설계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도 확보했다. 건폐율이 낮아 동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전 가구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주고,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도 무상 제공해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자경천과 자경2 저류지가 바로 옆으로 흐르는 자연친화적 입지다. 인근에 하산공원, 흥예공원 등 수변공원과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한울 초등학교가 단지 맞은편에 있고, 바로 옆에는 흥북 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지난 2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가 체결되면서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흥북읍 신경리 38-3번지에 마련되며, 다음달 중 오픈할 예정이다.

가을 분양 큰장 '스타트' '뽕뽕한 한 채' 어디있나

아파트 분양 성수기를 맞아 가을 '분양대전'이 시작됐다.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다소 주춤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중심지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연내 막바지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단신도시와 평택 등 수도권권을 비롯해 천안과 홍성, 울산 등에서 새 아파트 청약이 예정돼 있다. 역세권 입지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자를 유인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시기를 조율하던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고 있다"며 "신축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있는 곳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프라·교육·교통 다 갖춘 '미니신도시'

천안 아이파크 시티
HDC현대산업개발

지상 33층 11개 동 1126가구 '브랜드타운' 조성
삼성SDI·천안일반산업단지 등 출퇴근 쉬워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 5지구(성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 2층~지상 33층, 11개 동으로 전용면적 84~150㎡, 총 1126가구 규모다. 단지가 자리한 성성지구 일대는 6000여가구의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 조성돼 미니 신도시급의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로 바뀔 예정이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단지 옆으로는 성성호수공원이 있고, 노태산과 노태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인근으로 이마트(천안서북점), 롯데마트(성성점), 코스트코(천안점), 신세계백화점(천안아산점)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이며, 현재 배정되는 천안성성초는 직선거리 약 600m 거리에 자리해 있다. 가람중(2025년 3월 예정), 두정중, 오성고, 두정고 등으로의 통학도 가능하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 부성역(2028년 개통 예정) 등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삼성대로와 번영로, 천안대로 등을 통하면 수도권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천안IC 진입도 수월해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이외에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단지는 삼성SDI(천안사업장), 천안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천안유통단지, 천안마정기계 일반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단으로의 출퇴근이 쉽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따르면 천안시 내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총 5만2284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천안 지역은 수도권 접근성도 우수하고, 각종 산단 통근도 수월해 직주근접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의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홍보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마련된다.



마전·완정역 ‘역세권’… 서울 접근성 개선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대우건설

총 919가구… 공공택지지구 ‘분상제’ 적용
초·중·고 인접, 상업시설 등 인프라 풍부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다음달 분양한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으로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다. 면적별 가구수는 ▲84㎡A 194가구 ▲84㎡B 140가구 ▲84㎡C 216가구 ▲84㎡D 86가구 ▲99㎡A 186가구 ▲99㎡B 97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에서는 인천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도보 10분대 가능하며, 지하철을 통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암역까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서곶로, 원당대로, 봉수대로, 검단로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김포 및 일산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500m 내에 마전초가 위치하며, 1.5km 내에는 마전중과 당하중, 검단고 등이 자리해 있다.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와 같은 대형마트부터 각종 행정 편의시설 등을 누릴 수 있다.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보로 검단지구택지 19호 근린공원과 2호 역사공원, 능내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는 철도 인프라 구축이 본격 진행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천 계양구 굴현동에서 서구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km를 연장하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GTX-D노선(2035년 예정)을 통해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은 1시간 이내에, 서울 남부(삼성역)와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과 고양을 잇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2035년 예정)도 계획되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도시철도 및 도로구역 개발에 따라 검단신도시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기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백화점 연결 생활인프라 ‘1번지’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현대건설

1호선 ‘평택역’ 역세권, 도보권에 버스터미널
단지 바로 옆 초·중·고… 합정동 학원가 인접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합정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으로 전용면적 45~178㎡, 총 1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5~112㎡, 599가구다. 타입별로는 ▲45㎡ 32가구 ▲59㎡A 279가구 ▲59㎡B 103가구 ▲74㎡A 45가구 ▲74㎡B 27가구 ▲74㎡C 3가구 ▲84㎡A 14가구 ▲84㎡B 12가구 ▲84㎡C 80가구 ▲112㎡ 47가구 등이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역 일대는 교통·교육·생활편의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원도심 지역이다. 1호선, 경부·호남선

(새마을·무궁화열차) 등이 정차하는 평택역 역세권 입지이며,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1정거장 거리에는 SRT가 다니는 평택지제역이 위치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실제 평택역에서 평택지제역까지 1정거장 이동 후 SRT로 환승할 경우 수서역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평택역은 AK플라자 백화점과 연결돼 있어 CGV를 비롯해 다양한 쇼핑, 문화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평택역 상권과 조개터 상권,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합정초가 있으며, 평택성동초와 평택여중, 한광중·고, 한광여중·고, 신한중·고,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등 다수의 학교도 인근으로 위치해 있다. 여기에 합정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 및 통풍효과를 높였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기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현장 부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이다.



다운2지구 최종심… 사통팔달 교통망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 우미건설

총 11개 동 731가구 … 인근에 초·중·고 신설
조경면적 30%로 높이고 스카이라운지 도입

우미건설은 다음달 울산광역시 다운2지구에서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를 선보인다. 지난해 공급된 ‘다운2지구 B2블록 우미린 더 시그니처(1차)’의 분양에 이은 후속 물량이다.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는 다운2지구 B-4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으로 총 7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84㎡A 514가구 ▲84㎡B 120가구 ▲84㎡C 97가구 등이다.

단지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의 부지를 개발하는 다운2지구의 최종심 위치에 들어선다. 단지 앞에는 역사공원,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계획되어 있다.

단지는 다운2지구 내 신설예정인 유치원과 초,

중, 고교 부지가 가깝고,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등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도 갖췄다. 이와 함께 주변에는 울산 외곽순환도로(예정), 다운2지구-성안교차로(예정), 국도14호선(확장 예정) 등이 계획돼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리뉴얼된 ‘린’ 브랜드가 도입된다. 전체 11개 동 중 6개 동을 정남향으로 배치하는 등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와 넉넉한 동간거리를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및 통풍을 확대했다.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30%로 높이고 다양한 테마조경을 도입해 쾌적성을 더했으며, 스카이라운지와 다목적 실내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실내탁구장 등도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의 기본주택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한국석유공사 후문 맞은 편에 마련된다.



검단호수공원역 호재 ‘공품아 단지’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신동아건설

11개 동에 669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인근에 GTX-D 예정, 개통시 강남 30분대

신동아건설은 다음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를 분양한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마전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으로 전용 64~101㎡,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 등이다. 특히 총 세대수 가운데 30%를 검단신도시에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또한 일부세대는 복층형 테라스와 펜트하우스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검단신도시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단신도시에는 커널컴플렉스, 휴먼에너지타운, 워라밸빌리지 등 5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있다. 이 가운데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에너지 자족 시범단지로 개발 중인 휴먼에너지타운과 수변형 상업특화거리로 조성되는 커널컴플렉스와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검단호수공원역이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인근에 GTX-D 노선도 계획돼 있으며, 개통시 강남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주변 상업지구 등을 중심으로 학원가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공품아’로 단지 앞에 수변공원(계획)이 자리하며, 다수의 근린공원(계획)으로 둘러싸여 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특별설계 공모에 당선된 아파트로 차별화를 더했다. 한편,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기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왕길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늘어난 불성실 공시, 개미들 울상 “공시 위반, 더 강력한 처벌 필요”

공시위반 기업, 제재 실효성 논란
주가 하락·투자자 피해 등 초래
“불성실 공시법인 제재 강화 필요”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져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누적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최악의 경우 시장 퇴출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올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지정 예고’는 41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38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 규정을 어길 때 가해지는 거래소의 제재 조치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크게 공시불이행, 공시 반복, 공시변경 등으로 구분된다. 사유별로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지연 공시를 비롯해 유상증자, 주주 계약 철회 등 공시 반복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글로벌의 경우 지난 8월 13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이후, 2개월이 지난 10월 7일에 정정 사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공시도 이달 14일에 지연 공시해 거래소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코스



/유토이미지

닥 상장사 바이온은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 반복을 사유로 지난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주가 하락을 불러오거나 자칫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기업의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사유에 따라 벌점 부과 또는 공시 위반 제재금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누적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격적성실질심사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러한 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단기간에 주가 하락을 불러오거나 자칫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기업의 상장 폐지로 이어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과태료나 벌점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금양의 경우 주가가 나올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하락률은 1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성실공시법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나쁜 소식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공시를 지연하면서 불가피하게 불성실 공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금 강화와 벌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권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트럼프 우세, 2차전지주 하락 가능성 높아

美 대선 후보 우열 따라 관련주 희비
초박빙 구도서 트럼프 우세 여론조사
국내 2차전지주 하락세 한달 새 뚜렷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도 특정 후보 우열에 따라 일부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앞선다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국내 2차전지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차전지 주요 종목으로 구성된 ‘KRX 2차전지 TOP 10 지수’(종가 기준)는 지난 9월 24일 4168.40에서 이날 3817.71까지 하락했다. 이는 약 8.41% 떨어진 수치다.

2차전지주의 부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 감소와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의 영향이 악재로 상존하기 때문으로 진단해왔다. 그러나 IRA 폐지를 공언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을 최근 소폭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아지면서 이달 들어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여파로 국내 2차전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시 떨어지는 2차전지 관련주’ 이미지.

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2차전지 산업 전반에 2배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는 최근 1개월 내 수익률은 지난 22일 기준 기초 지수 대비 11.10% 하락했다. 한국 2차전지 산업을 대표하는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2차전지 TOP 10’의 수익률도 기초 지수 대비 7.18% 떨어졌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최악의 경우 IRA를 무력화하고 보조금 혜택을 중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로 매년 조 단위의 보조금을 받아왔

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전환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 의견을 내며 세액 공제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2차전지 업종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전기차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2차전지 셀, 소재 업체들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국내 2차전지 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 ‘비중 축소’를 유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국내 ETF, 엔비디아 중심 AI 투자 확대

엔비디아 액면분할 이후 140弗 돌파
인텔 제외, 국내 AI테크 ETF 각광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실적부진을 겪는 인텔 등의 종목을 뺀 엔비디아 관련 ETF로 집중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빅테크 관련 ETF 상품을 고르는 투자자들에게는 엔비디아의 편입비중이 우선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종목의 비중을 높게 잡고 대신 인텔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ETF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는 올해만 AI 관련 ETF를 3개나 선보였다. ▲Kodex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Kodex 미국AI테크TOP10 ▲Kodex 미국테크1조달리기업포커스 3종은 모두 인텔을 투자종목에서 제외했으며 엔비디아에 가장 큰 투자비중을 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Kodex ETF 3종 중에서는 제일 늦

게 상장했지만 엔비디아 비중이 27.59%로 가장 큰 ‘Kodex 미국테크1조달리기업포커스’가 상장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상장 이후부터 지난 22일까지 Kodex 미국AI테크TOP10 타겟커버드콜은 6.42%, Kodex 미국AI테크TOP10은 4.66%, Kodex 미국테크1조달리기업포커스는 17.10%의 수익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테크1조달리기업포커스는 미국테크 BIG3에 최대 75%나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고,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은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엔비디아의 비중을 더 크게 잡은 ETF를 내놨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2022년 상장한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엔비디아 비중 25.97%)에 이어 올해 6월에는 엔비디아 비중을 32.29%까지 늘린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까지 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대차 ‘인도증시’ 상장… LG 기대감도 쑥

LG, 인도법인 실적 성장세 급등

우려가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현대차그룹이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풀리며 인도 증시에 상장한 가운데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인도 증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특히 LG전자 인도법인은 올해 실적 성장세가 급등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인도 증시에 상장한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거래 첫날 7.16%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이날 주가를 반영한 시가총액은 약 24조원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현대차 시총 약 49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도 증시 내 밸류 부담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우려되고, 신주 발행없는 모회사 구주 매출로 자금회용 기대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도 신차 업황 둔화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통해 LG전자가 내년도 인도 법인 IPO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이를 통해 130억달러(약 17조 9000억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10억~15억달러(약 1조 3000억원~2조 원)를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인도 IPO는)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준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도 가전 시장은 보급률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이 성장하고 있다”며 “진행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인도 법인의 높은 성장성과 밸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자산운용 “연기금 등 분산투자 전략”

‘디딤다이나믹 자산배분펀드’ 출시

“KB 디딤다이나믹 자산배분펀드”는 다양한 국내외 대표시장 지수를 추종해 광범위한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기금 등의 분산투자 운용 방식과 유사한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기금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정적 성과를 내는데 적합한 상품이다.”

류범준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딤펀드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 “KB 디딤다이나믹 자산배분펀드”의 운용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디딤펀드는 장기 연금투자에 적합한 밸런스드펀드(BF) 유형의 상품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가 올해 초부터 공동으로 준비해왔다. KB자산운용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KB 디딤다이나믹 자산배분펀드’를 소개했다.

“KB 디딤다이나믹 자산배분펀드”는 투자 위험이 다른 다양한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는 자산배분펀드다. 글로벌 채권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시황에 따라 30~50% 범위 내에서 글로벌 주식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신하은 기자



유럽에서 2번째로 넓은 알프스 면적을 가진 이탈리아
그 속에 숨겨진 소도시들과 아름다운 기암 봉우리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탈리아 돌로미티 & 알프스 소도시

[8박 10일]

No 팁!, No 옵션!, No 쇼핑!


알프스 소도시에서 즐기는 낭만과 여유로운 여행
전문 가이드가 함께하는 맞춤형 안전여행

freepik



 남프랑스 휴양지 &
예술인들의 소도시 [7박 9일]



 독일 중남부,
고성과 소도시 [7박 9일]



 이탈리아 남부
숨겨진 소도시 여행 [7박 9일]

MICE는 물론 일반여행도
여행사는 결국 에스앤마일즈입니다!



QR 코드 스캔
카카오톡채널 연결
등록 후 상담원 연결 가능



공유 전기자전거 편의성 ↑... 산업부, 70개 규제 특례 승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현대자동차,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 피크 시간에 적시 배치 가능해져

선우엘, AI 기반 안전 대피로 안내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 시스템 설치

앞으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바로 충전해 즉시 배치할 수 있게 돼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화재 발생시 AI(인공지능)가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을 회피하고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 사업 등 70개 규제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 차량을 제작해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그



광양시 공유 전기자전거.

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했다. 앞으로는 임대 차량을 활용해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차량의 최종 수요자인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직접 차량을 실제 업무 환

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등 피크 시간에 적시 배치를 통한 사용자 이용 편의성 제고, 유지보수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며 "전기 화물차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우엘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 시스템을 서울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각 100대씩 설치해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AI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신청기업은 AI 기반 시스템이 정확한 화재 위치 분석과 대피 경로 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을 통해 "대규모 건물에서 화재 시 최적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삼물산, 테크로스 컨소시엄은 태양광 연계 청정수소 생산 알

칼라인 수전해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에 나서고, HD현대중공업은 건조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 연료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회수해 사업장 내 자가소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진청, 반려동물 사료 품질·안정성 확보

과학적 근거 기반 영양표준 설정 검역본부, 동물용 신약개발 지원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 지침이 세워졌다.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 및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료 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농진청은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다. 또 양육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의존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한 사

료 생산과 검증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으로, 동물 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양소 38종에 대해 권장 함량을 제시했다. 또 강아지와 번식기 암개 40종, 다 자란 고양이(성묘)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을 정립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축산학회 반려동물영양연구회와 국내외의 사료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의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미국사료관리협회 등 국내외의 영양 지침안을 비교·분석했다. 올 7월에는 반려동물

사료 산업 관련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가 참여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당국은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정보 교류 등을 통해 동물용 신약 개발 지원 방향 모색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경북 김천 소재 국제중자생명교육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동물용 의약품 신제품 개발 현황과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2024년 동물 의약품 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대책 마련

경기도 부천시·강원도 춘천시에 지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23일 밝혔다.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며칠 후 A씨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의 식당을 방문했으나,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견 출입이 거부됐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대환 기자 kdh@

안덕군, '수출 붐업코리아'서 국내기업 수출상담 독려

(산업부 장관)

지역 관광 프로그램 소개 라운지도 방문

안덕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1일 영업사원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장관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식에 참석, 수출상담회 상담부스를 방문해 국내기업과의 수출상담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지역 관광 프로그램 소개 라운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 2주차를 맞아 22일,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안덕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붐업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와 수출상담회를 연계한 종합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에서 4대전시장, 업종별 협회와 협업체 위크 형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정보제공·교통편 등 바이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GM, 파나소닉, IDB(미주개발은행) 등 62개국 1200여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 유망수출기업 3000개사, 참관객 20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쉬었음' 청년 DB로 취업 밀착지원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 등 연계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들을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돼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8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취업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국대는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졸업생 전담 컨설턴트가 1대 1로 컨설팅

하고, 서류·면접 탈락자에게 맞춤형으로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정보를 연계해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부 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 중 사후관리가 종료됐음에도 미취업 청년 1만명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역청년특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취업 의욕을 찾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대환 기자

유산균·홍삼 등 본캐 넘어 '화장품' 부캐 키우는 기업들

하이트진로 계열사 서영이엔티 신사업 모색 비엔비코리아 인수 hy, 브랜드 '프레딧 뷰티' 강화 자체개발 '피부 유산균 7714' 사용 KGC인삼공사 '랩1899' 론칭 진생 세럼·크림 등 3종 선보여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CJ올리브영

식품업체들이 저성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뷰티 분야를 낙점하고 시장에 출시표를 내밀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 서영이엔티는 화장품 제조사 비엔비코리아를 인수했다. 서영이엔티는 가공식품 도소매업과 맥주 냉각기를 제조하는 종합식품기업이다. 그동안 식품·생맥주 기자재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실적을 유지했으나 최근 경쟁이 심화되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고자 신사업을 모색해왔다는 설명이다.

서영이엔티는 다른 ODM사 대비 높은 상품 개발 역량, 차별화된 자체 프로세스 등을 비엔비코리아 인수 결정 요

인으로 꼽았다. 비엔비코리아는 매년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442억원, 70억원으로 전년(329억원, 46억원) 대비 각각 34.3%, 52.2% 늘었다. 올해 목표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이다. 매출로 따지면 국내 화장품 ODM 업계 15위권이며 '달바', '메디큐브', '더마팩토리', '닥터팍티' 등 100여개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고객사로 뒀다.

허재균 서영이엔티 대표이사는 "비엔

비코리아 인수를 통해 종합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의 주류 전문 매장 '와인앤모어'를 운영 중인 신세계L&B도 화장품 업체와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와인앤모어 뷰티' 상표를 출원하고 와인을 활용한 화장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y는 특히 유산균을 원료로 한 뷰티 브랜드 '프레딧 뷰티'를 강화하고 있

다. 식음료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종합 유통회사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hy는 지난해 5월 'NK7714 하이퍼 부스팅 앰플'을 출시한 뒤 크림형 화장품, 선 에센스, 젤 클렌저 등을 차례로 선보이며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프레딧 뷰티는 자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인 '피부 유산균 7714'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hy가 5년간 연구개발한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부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았다. 자사몰 '프레딧'과 오프라인 무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중이다.

KGC인삼공사는 주력 사업인 홍삼의 시너지 극대화과 수익다각화의 일환으로 화장품 사업을 확대하기에 나섰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3월 비건 화장품 브랜드 '랩1899'를 론칭하고 신제품 '레드 진생 팡타이드 세럼' '레드 진생 콜라겐 크림' '레드 진생 히알루론산 크림' 3종을 출시했다. 국내 출시 전 미국에서 선공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비건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뒤 다른 국가에도 진출

하기 위한 전략이다.

KGC인삼공사의 화장품 사업은 처음이 아니다. 홍삼 진액을 기반으로 한 '동인비'도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은 200억원 수준이다. 회사는 환경친화적이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건 화장품 라인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산업의 화장품 시장 진출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장품 시장의 낮은 진입 장벽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등 세계적인 수준의 ODM(제조자 개발 생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 개발 조직이나 제조 설비가 따로 없어도 화장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차별성이 없으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다"라며 "이미 수많은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후발주자로 화장품 시장에서 단시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 고객사에 기술력·유통 경쟁력 알렸다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무선탕 수용성 등 응용사례 선보



지난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롯데웰푸드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 2024'에 참석한 글로벌 식품 소재사 임직원들.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는 지난 18일 로케트코리아(Roquette Korea), 심라이즈(Symrise) 등 글로벌 식품 소재사들과 '롯데웰푸드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고객사 임직원과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롯데웰푸드의 소재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력, 유통 경쟁력을 알리고 고객사와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고객사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세미나는 로케트코리아의 회사 및 제품 소개로 막을 열었다. 로케트는 1933년 프랑스에서 설립돼 식물성 소

재의 원료를 전 세계로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세계 100여 국가에서 활동하며 50억 유로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완두 단백질 등 다양한 식품 소재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2021년부터 롯데웰푸드가 국내 식품 유통 총판을 맡고 있다.

로케트코리아는 발표를 통해 식물성 조직 단백질과 무선탕 수용성 식이섬유,

당알콜 등의 원료와 응용 사례를 선보였다. 완두 단백질 브랜드인 '뉴트랄리스(Nutralys)',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브랜드인 '뉴트리오스(Nutriose)' 등 롯데웰푸드가 독점 유통하고 있는 기능성 원료들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헬스&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능성 식품 소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강연은 글로벌 향료 회사 심라이즈가 열대우림동맹(RA) 인증 바닐라 원료에 대해 발표했다. 심라이즈는 지난 2022년 롯데웰푸드와 'RA 인증 바닐라빈 사용 및 바닐라 조향 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다가스카르산 RA 인증 바닐라빈 수입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바닐라 추출물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심라이즈는 원료와 더불어 세계적인 조향 기술과 노하우를 설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롯데중앙연구소가 국내 각지의 전통 식품과 꽃, 과일 등에서 분리 선별한 유용균주 및 특허 등록된 미생물을 소개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자체 균주 관리 시스템인 LRCC(롯데 R&D 컬처 컬렉션)를 공개하며 연구성과를 강조했다. 향후 미생물 소재 연구방향과 신제품 제안 등을 공개하며 산업 트렌드와 관련 설루션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빙그레 '빵또아 고구마케이크'

빙그레가 달콤고소한 아이스크림 신제품 '빵또아 고구마케이크(사진)'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빵또아 고구마케이크는 부드러운 카스텔라와 고구마맛 아이스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빵샌드형 아이스크림이다. 고구마맛 아이스크림에 잘게 부셔진 고구마맛 쿠키를 더해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를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다.

빙그레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인기 베이커리 메뉴인 고구마 케이크를 아이스크림으로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NS홈쇼핑 '테팔' 기획전 실시

NS홈쇼핑의 온라인 채널인 NS몰에서 오는 31일까지 'NS푸드페스타 2024' 협찬사인 '테팔'의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테팔 기획전 대표 상품인 '올뉴 테팔 매직팬츠' 화이트 골드 에디션 8종 세트(13만5000원)는 NS푸드페스타2024의 주요 프로그램인 쿠킹클래스에서 20대 참가자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매직팬츠' 시리즈 상품 중 하나다. 손잡이를 떼면 플레이팅도 수납도 깔끔하게 활용 가능하고, 조리 시작 타이밍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열센서가 있어 편리하다.

스테인리스 스틸 최고급 라인으로 티타늄 입자가 들어간 코팅층과 굽힘에 강한 추가 마감층까지 더 강화된 티타늄 코팅과 3배 더 오래가는 논스틱 코팅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갤러리아百, VIP고객 '부르고뉴 와인' 선호

구매와인 45% 부르고뉴 와인

연 1억원 이상 쓰는 백화점 VIP 고객들이 선호하는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과 '샴페인'으로 분석됐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달 서울명품관에 오픈한 프리미엄 와인숍 '더비노 494'의 매출을 기반으로 연간 1억원 이상 구매하는 VIP 고객들이 선호하는 와인을 분석한 결과 구매 와인의 45%는 부르고뉴 와인, 30%는 샴페인이었다고 23일 밝혔다.

프랑스 중동부에 위치한 부르고뉴 지방은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특급 포

도밭이 가장 많은 와인 생산지다. '신의 물방울'이라 불리는 수천만 원대의 '로마네 콩피'도 부르고뉴에서 생산된 최고급 와인이다. 특히 재배하기 까다롭고 섬세한 맛을 지닌 '피노누아' 와인의 주 생산지로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부르고뉴 와인 중 더비노494에서 대표적으로 인기를 끈 와인은 ▲아르망 후소 주브레 샴페르팽 2016 ▲프랑스 조르주 드 보귀에 뫼지니 그랑크뤼 2017 ▲엠마누엘 후제 본 로마네 2019로, 모두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엘포인트 구독클럽 '김치 정기구독' 오픈

롯데멤버스 '롯데호텔 배추김치' 선택

롯데멤버스는 엘포인트 구독클럽의 두 번째 테마로 롯데호텔 김치 정기구독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독클럽은 엘포인트 회원을 위한 테마형 구독 서비스로, 지난 5월 와인 테마를 오픈하며 첫 선을 보였다. 롯데멤버스는 4300만 회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관심사를 분석하고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해 취향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테마는 롯데호텔 배추김치다. 롯데호텔 고유의 레시피와 노하우로

원재료 재배부터 김치 제조까지 간단한 관리 하에 생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직접 엄선한 국내산 고품질 식재료만을 사용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하며 당일 생산 및 출고돼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2회차부터 종료 회차까지 매월 3000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되돌려준다. 또한 6개월 구독 완료 시 보너스 5000포인트, 12개월은 1만5000포인트가 추가 적립돼 최대 4만8000포인트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엘포인트 앱 내 엘라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K뷰티 ‘라방’ 성지 만든다”... 신상품·신진 브랜드 발굴

올영라이브 전용 스튜디오 공개
파트너 라이브 프로그램 지원 강화
뷰티·라이프스타일 특화 방송 운영

CJ올리브영이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올리브영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본사에서 올영라이브 전용 스튜디오를 공개하며 라이브 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올영라이브’는 올리브영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선보인 자체 모바일 생방송 플랫폼인데, 이번에 새롭게 선보여진 올영라이브 스튜디오는 뷰티&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공간이다. 올리브영은 뷰티 브랜드 기업들과 협력해 K뷰티 상품 경쟁력을 보다 생생하게 소개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리브영은 국내 뷰티 시장에서 ‘중소·신진 브랜드 등용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직접 발굴한 중소기업 브랜드나 신상품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공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영라이브는 신제품 출시 기념 ‘쇼케이스’, 매월 4개 브랜드의 신상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추천 행사 ‘신상 티케팅’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올해 올영라이브에서 1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서울 용산에 있는 ‘올영라이브 전용 스튜디오’에서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사인 ‘바이오던스’가 ‘파트너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CJ올리브영

방송 7개는 모두 신규 입점 브랜드 및 신상품 론칭 라이브였다는 것이 올리브영 측의 설명이다.

올리브영은 이달부터는 신규 스튜디오에서 입점 브랜드 기업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파트너 라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점 브랜드는 올리브영이 올영라이브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마스터 가이드’를 제작할 수 있고, 올리브영 소속 프로듀서들의 맞춤형 교육도 받는다.

이밖에 올리브영은 이색 프로그램으로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올영라이브의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뷰티 전문가의 파우치 속 아이템을 공개하는 ‘코덕의 파우치’, 크리에이터가 엄선한 아이템을 설명하는 ‘올영마켓’, ‘슈퍼브랜드데이’, ‘올영세일’ 등 대형 프로모션과 연계해 혜택을 극대화한 방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올영라이브는 이러한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올영라이브 시청자 수는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약 142% 늘었고 같은 기간 주문액은 33% 증가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이미 ‘올영라이브’에 중점을 두고 온라인 사업에 꾸준히 주력해 왔다는 것이 국내 뷰티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리브영은 국내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의 협업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바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5월 자사 공식 온라인몰에 설화수를 입점시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층을 정조준했다. 특히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에서 ‘올영라이브’ 방송을 열어 설화수 입점 일주일 만에 7억원을 돌파하는 매출을 올렸다. 해당 방송 누적 시청자 수는 35만명으로 집계됐고 시청자 중 30대 이하 고객의 비중은 6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올해 2분기 기준 1조2080억원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온라인 매출은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약 26%, 27.3%로 집계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올리브영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신세계트롬보이

K패션 디자이너 육성

‘액셀러레이팅 F’ 우수 브랜드 선정

신세계트롬보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신진 패션디자이너 발굴과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F 데모데이’를 진행하고 우수 브랜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콘진원이 주관하는 액셀러레이팅 F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 진출할 신진 디자이너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유망 브랜드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타트업처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계트롬보이와 콘진원은 지난 5월 참가자를 모집해 신진 브랜드 총 10팀을 선발하고, 10주간에 걸쳐 전문 멘토링 과정을 진행했다. 모든 과정이 끝난 지난 11일에는 데모데이를 열고 패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를 소개하는 쇼케이스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브랜드 스토리부터 활동 성과, 신제품, 향후 비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신세계트롬보이와 콘진원은 전문 심사위원과 데모데이 현장 평가를 종합해 총 2개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했다.

먼저 ‘신세계트롬보이 특별상’에는 패션 브랜드 ‘준데킴’이 선정됐다.

‘2024 데모데이 최우수 브랜드상’에는 슈즈 브랜드 ‘피노아치퀵’이 선정됐다.

/최빛나 기자

SK바사,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 인니 품목허가

북반구서 남반구까지 글로벌 행보
생산시설 연속 가동, 제조원가 절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 프리필드시린지’가 최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국(BPOM)으로부터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된 독감백신이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 걸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남반구 및 북



스카이셀플루 수송용 제품. /SK바이오사이언스

반구 독감백신 접종 지점이 동시에 적용돼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백신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품목허가는 북반구에서 사용되는 독감백신에 대한 것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남반구 독감백신에 대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허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생산 시설을 연속 가동해 제조원가 절감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스카이셀플루는 임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세포배양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심사(PQ) 인증을 획득한 독감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세포

배양 방식은 유정란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접종 가능하다.

또 세포배양 방식으로 제조한 백신은 유정란을 이용해 생산한 백신에 비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기존 유정란 방식 대비 생산 기간도 짧아 대유행 등 유사 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셀플루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관절 개선 개별인정형 원료 승인

동국제약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연구해 자체 개발한 천연물 소재 ‘나한과박추출분말(DKB131)’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절 건강 개선에 관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승인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국제약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체적용 시험과 동물 시험을 통해 나한과박추출분말의 관절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동국제약은 동물 연구에서 나한과박추출분말의 통증 완화 효과뿐 아니라 항염증, 연골보호 효과 등을 확인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에 따르면 골관절염이 유도된 동물에게 나한과박추출분말을 경구 투여한 결과, 3주 후 혈액과 연골 조직에서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이 감소했다. 또 연골을 구성하는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억제되는 작용, 연골 형성 지표 단백질 발현 증가 등과 관련된 기전을 규명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국제 학술지 ‘뉴트리언츠’에 게재되기도 했다.

동국제약은 이번 승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차별화된 관절건강제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L&B, 호주 와인 ‘투헨즈’ 캠페인

신세계L&B가 내달 10일까지 전국 와인앤모어 매장에서 국내 인기 호주 와인 ‘투헨즈’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투헨즈’는 유명 와인 평론가인 로버트 파커가 ‘남반구 최고의 와인 메이커’라 극찬했을 만큼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호주 프리미엄 와이너리다. 현재 70여 개국에 와인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은 2024년도 기준 글로벌 수출량 1위의 핵심 시장이다.

신세계L&B는 더 많은 고객이 투헨즈의 프리미엄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기획했다. 행사는 투헨즈 인기 제

품인 ‘픽처’ 시리즈와 ‘가든’ 시리즈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제품 2병 이상 구매 시 2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픽처 시리즈의 ‘엔젤스 셰어’와 가든 시리즈의 ‘벨라스가든’이 있다. 이른바 미식 와인으로도 잘 알려진 ‘엔젤스 셰어’는 우아한 풍미와 적당한 산도를 갖춰 햄버거, 피자 등 다양한 음식과 페어링하기 좋다. ‘벨라스가든’은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 ‘Wine Spectator’ TOP100에 9차례 선정된 대표적인 프리미엄 호주 와인으로도 밀도 높은 탄닌과 과일 풍미의 균형 잡힌 맛이 일품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지그재그

‘이랜드 메가워크’

겨울 시즌 기획전

카카오스타일의 e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이랜드 대표 스파(SPA) 브랜드들의 인기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이랜드 메가워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그재그에 따르면 ‘이랜드 메가워크’는 이랜드 대표 SPA 브랜드들의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연합 기획전이다. 니트, 카디건 등 ▲스파오 ▲미쏘 ▲로엠 ▲후아유 ▲슈펜 ▲클라비스 ▲폴더 ▲에블린 총 8곳 브랜드 상품이 준비됐다. 행사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선 지그재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옴이와 협업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크리에이터 아옴이는 콘텐츠 영상을 통해 이랜드 SPA 브랜드 상품을 활용한 다채로운 겨울 코디를 제안할 예정이다. 아옴이의 착장 상품은 기획전 기간 동안 지그재그에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

다양한 할인 코너도 준비됐다. 지그재그는 인기 상품 30개를 단독 할인가에 판매하는 ‘단독 특가’, 카테고리별 수요가 높은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카테고리 특가’, 가을 겨울 시즌 신상품을 소개하는 ‘브랜드 하이라이트’ 등을 운영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첫 걸음의 설렘,
함께 해 온 여정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내일의 힘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나아지도록



QR코드를 찍고
내일의 에너지를
확인해보세요





신한라이프, 임직원 걸음기부로 국가유공자 신발 후원
 신한라이프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을 통한 임직원 걸음기부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신발을 후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순기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장(왼쪽)과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KT-국립과천과학관, AI 인재 양성 업무협약
 KT는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정호 KT 전략·신사업부문 에듀AX사업단장(왼쪽)과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효성, 협력사에 안전조끼 4000벌 전달
 효성은 지주사를 비롯한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등 계열사의 건설현장 및 지방 사업장 협력사 200여 곳에 안전조끼 4000벌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장비 지원은 협력사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효성



한국타이어, 하반기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전개
 한국타이어는 대전시 대덕구 옥상동 대전공장과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산공장에서 '2024 하반기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각각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은 혈액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겨울철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고자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탤다. /한국타이어



한투증권-FC서울,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한국투자증권이 FC서울과 함께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2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축구교실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0명이 참가했다. 어린이들은 이승모, 최준 등 FC서울 선수들과 함께 미니게임을 즐기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

허진수 SPC 사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찬 참석

식품무역박람회 60주년 기념 SPC그룹, 韓 기업 유일 초청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허진수 사장이 21일 저녁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파리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 식품무역박람회(SIAL)의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스파(유통), 일본의 마루베니(곡물·무역), 프랑스의 사베시아(유제품)·리마그랑(농업)·유리알(유제품) 등 글로벌 식품·유통산업 관련 기업인 약 40명이 초청됐다.

한국 기업으로는 SPC그룹이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다.

SPC그룹은 밀·버터·치즈 등 프



21일 저녁(프랑스 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SPC그룹 허진수 사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

랑스산 식품원료에 대한 통상 활동이 활발하며,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14개국에 진출해 총 400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SPC그룹이 한·프랑스 경제 및 음식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만찬 행사에서 프랑스의 우수한 식품원료와 음식문화를 한국과 세계인들에게 전파하고, 프랑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교류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켜준 SPC그룹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SPC그룹은 2018년과 2022년에도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최하는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행사에 초청돼 허영인 회장이 참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성전기, '동반성장 소통포럼' 개최 장덕현 사장 "상생협력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

이오테크닉스사 공로상 시상

삼성전기가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삼성전기는 지난 22일 이오테크닉스사에 방문해 협력사 협의회(협부회) 회원사들과 '동반성장 소통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반성장 소통포럼은 회사의 전략과 계획, 투자 전망 등을 교류하고, 질의 응답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이 날 행사에서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사업부별 주요 추진 방향과 제품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지난 22일 열린 동반성장 소통포럼에서 신사업 프로젝트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기

고 전장(Mobility industry), 로봇(Robot), 인공지능·서버(AI·Serve

r), 에너지(Energy)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Mi-RAE)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미래 산업의 기술 실현은 부품·소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협력사와의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15년간 협부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상생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하고, 동반 성장 실현해 온 이오테크닉스사에게 공로상을 시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코프로 "中-인니 통합법인 만들 것"

창립 26주년 기념식

삼원계 양극재 경쟁력 극대화 방침

에코프로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초격차 기술과 코스트 리더십으로 삼원계 양극재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간다.

에코프로는 포항캠퍼스에서 26주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실패와 도전

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현재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삼원계 양극재 경쟁력을 극대화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현재의 캐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줄 것

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위기 타개책으로 중국 GEM과의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설립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회장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과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해야 이차전지 사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중국 GEM과 힘을 합쳐 광산, 제련에서 양극재, 리사이클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내달 6일 '지방시대 엑스포' 열린다

KIAT 지방시대 정책 성과 공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내달 6일~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으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회째인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현주소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로 열린다.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계, 활동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정책 성과를 나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 조달청, 통

계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전시관, 국제협력 워크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욱 확장되고 연결된 지방시대 정책 박람회 현장을 제공한다.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전시관은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실감나는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방시대 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상득 前 의원 별세 (17대 국회부의장)

제17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전 의원(사진)이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1935년 경북 영일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한 뒤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섬유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수출을 주도한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고인은 1988년 제13대 경북 영일·울릉 지역구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제14·15·16·17·18대까지 포항남·울릉 지역구에서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의정활동 중에는 국회부의장, 운영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한일의원연맹회장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당직을 두루 거쳤다.

유족으로는 아내 최신자씨와 자녀 지형·성은·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이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30분이다. /원승일 기자 won@

인사

◆골든블루 ◇부사장 승진 △최강진

부음

▲곽청수씨 별세, 곽평화(목사)·빈화·배화 부친상, 김병탁(전 시카고 포스터은행 은행장)·성기철(전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서봉대(전 뉴스원 부국장) 장인상= 23일,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031-910-7444

▲김영중씨 별세, 김선영(올댓스포츠 부장)씨 부친상 = 23일,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401호, 발인 25일. 02-2676-4444

나쁜 감정의 좋은 이유



진성오 소장
신비한 심리사건

심리검사를 하거나 임상장면에서 많은 내담자나 환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경우 부정적 정서로 알려진 우울과 불안감이 마치 기본 옵션처럼 따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그래선 안 되지만-진단명이 떠오른다. 그런데 이런 흔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필자의 머리에 항상 한때 지속되던 질문이 슬며시 떠오른다. ‘인간이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과 혼란을 경험하도록 진화했다 말인가?’

여기에 좀 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아니 세상에는 꼭 이런 우울, 불안 혹은 분노 뭐든 좋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냥 조증(躁症)인 기분을 죽을 때까지 느끼면서 살다가 삶을 가장 즐거운 상태에서 죽도록 진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의 하나로 제시되는 학문이 ‘진화정신병리학’이다. 진화정신병리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연선택이 진화의 본성 중 하나인데 불안, 우울 장애 등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제거하지 않고 왜 남겨둬서 그로부터 인간을 고통 받게 했을까?

질문이 있으니 답이 있어야 하는데 답을 아직 줄 만큼 연구가 많지는 않아서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학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이유를 들여보면 아이러니 하게도 뒤집힌 질문이 되 돌아온다. ‘그게 없으면 우린 다 죽어...’

어? 무슨 말인가? 그 이유를 들여보면 인간이 불안, 우울 등등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가치로 장애인 것이지, 자연계에서는 인간이 보이는 불안과 우울은 오히려 정상인 것이고 그게 없으면 인간은 눈앞의 호랑이나 사자에게 까불다 한 끼의 식사가 되었을 것이며, 위험한 장소를 기억하면서도 또 찾아가거나, 무모한 용기로 위험한 행동을 해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좀 말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의 여러 생명체에 비하면 한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

협하는 온갖 대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노력 했던 조상들이 만약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 뭐가 지나치게 돌아다니지 않고 또 뭘가에 실패하고 좀 가만히 있도록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는 특성 같은 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 설명이 지금의 우울함과 불안감을 해소해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적어도 정상·비정상을 구분한다면 우울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고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더 비정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꼭 정상과 비정상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도달한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더해서, 우울과 불안의 고통이 당연하니 피병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우울과 불안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종의 병이기보다는 오히려 우울과 불안이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를 더 오래 적응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 받는 것이 ‘정상 인간’이라는 점이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독서 유행’ 왜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가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MZ세대 사이에서 독서가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책을 읽는 모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며 책 읽기가 마치 세련된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서 열풍이 미디어와 일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모양새다. ‘독서도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라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한 독서’라는 식의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왜 독서가 일시적인 유행이 됐을 때 유독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걸까.

먼저 유행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비판은

독서 행위 자체가 가진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독서가 깊이 있는 성찰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서가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 하는 ‘보여주기식’ 독서가 늘어난다고 여겨져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책 표지나 독서 장면을 과시하는 것을 허영으로 보며 그런 독서가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단정 짓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기하고 싶다. 독서가 유행이 되는 것이 왜 나쁜가. 독서는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행위다. 비록 누군가가 사회적 동향에 휩쓸려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식이나 새로운 관점을 얻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책을 읽는 동기가 ‘허세’에서 출발했다더라도 그것이 독서의 본질을 훼손하

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책을 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적 성장과 사고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독서가 특정 사람에게 일종의 문화적 허세일지라도 지식을 쌓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독서 문화가 대중화된다는 사실 자체가 반가운 현상이다. 지금껏 ‘책 읽기’는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독서가 트렌디한 행위로 변모하면서 독서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더 많은 사람이 책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독서 시장의 활성화와 지식의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이유’보다 ‘결과’다. 그 출발이 무엇이든 독서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행위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4일 (음 9월 2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남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48년생** 우선 비상금을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 **60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72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돌아서야. **84년생** 바쁘기는 하지만 이익도 많다.
- 37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49년생** 일이 풀리는 듯하는데 의외의 복병을 조심. **61년생** 교만으로 복이 달아날 듯. **73년생** 찬바람이 깃을 스며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배고픔을 면한다. **85년생** 늦어도 화합하는 마음을.
- 38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서는 웃지 않는다. **50년생**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서 큰 보람이 온다. **6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4년생** 차게 응집하는 성향으로 은둔형이 되지 않도록. **86년생** 상상만으로 행복한 하루.
- 39년생** 상대를 배려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51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 늘은 자중해야. **63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 챙겨라. **75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시절 운기에서 발전. **87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 4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2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처지게 되니 주의. **64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76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큰 행운이 따르는 하루. **88년생** 부자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라.
- 41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53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65년생** 발을 두려워하면 끈을 얻을 수 없다. **77년생** 희소성이 주는 만족감을 위해 공상하지 말고 공부. **89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저녁.
- 42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54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시기가 다르니 겸손해야. **66년생** 집 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봄 맞을 준비. **78년생** 부동산으로 이득이 나기 시작했다. **90년생** 다이어트는 계획을 갖고 해야 실패가 없으니.
- 43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55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커진다. **67년생**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79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금계획을 우선해야. **91년생** 불평 말고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도록.
- 4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5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8년생** 비가 든 구름을 걸어서 봐서 어찌 알겠는가. **80년생** 감성을 내세우다 꺾임을 당할 수. **92년생** 내가 좋다고 남도 다 좋은 건 아니다.
- 45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57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없다. **69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81년생** 젊은 날에는 늘 기회가 따르니 실망은 금물이다. **93년생**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 46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5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 **70년생** 우울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라. **82년생** 살이 찌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니 조심. **94년생** 시간이 있으니 급한 성과보다는 다져가면서.
- 47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툭하니 다시 노력. **59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71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는다. **83년생** 조상님 덕으로 비단옷이 싸이듯 재물이 늘어난다. **95년생** 결정적인 말씨는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서 발생.

김상회의 四季 청춘도인

도(道)는 그대로 길이다. 그래서 도인(道人)은 ‘길을 아는 사람’이다. 무슨 길을 아는가. 보통은 마음의 길 정신의 길을 아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마음의 본성을 알고 정신의 진리를 깨칠 만한 사람은 연령대가 대중은 중장년을 넘어서 노년인 것이 보통이다. 도를 안다는 것은 마음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해봐서 하나를 통해 열을 아는 지혜로서 통찰지가 열리고 그래서 생과사를 뛰어넘음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불쑥불쑥 물어대는 모 종교인들은 파릇파릇 대체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갖추고 보통 남녀 2인 일조로 다니며 묻는 젊은 층들이다. 그들은 청춘 도인인가.

며칠 전 필자는 신문을 보며 “아니 이런 청년 도인이 있나!” 하며 감동이었는데 20세 피아니스트의 인터뷰 소감을 보면서였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클래식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라모폰 2관왕을 수상하면서 밝힌 소감은 도인의 경지가 아니면 말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반 클라이브 쿡쿠르 우승의 감동이 엇그제 같은데 다시 클래식 음악계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것이다. 그의 수상 소감을 다 읽길 순 없지만 “모든 게 연결된 세상... 제가 태어나서 접한 처음 접한 음악인 부모님의 말투로 시작해... 내가 접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말이었다. 어떤 한 분야에 전통하고 실력을 갖추면 역시 도인 취급을 받는다. 다도가 경지에 오르면 다성(茶聖)이 되는 것이며 서예에 달통하면 서성(書聖)으로 불리며 베토벤이 음악의 성인 악성(樂聖)으로 불리듯이 말이다. 천부적 재능을 갖춘 데다가 정신세계마저 깊다. 클래식 피아노 음악계에 깊은 울림과 대성(大聖)을 기대해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4			3	
8				2	7	
	7	1			9	6
	8	2		7		
			2	1		1
3			4		2	5
		6	9			5
		7	1			9
2				5		

9	7		6		3	5
			4			
		3			1	9
		9	3	4		7
5			9	6	8	
7	9	8			4	
				4		
6	4			7		1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4			3	
8				2	7	
	7	1			9	6
	8	2		7		
			2	1		1
3			4		2	5
		6	9			5
		7	1			9
2				5		

9	7		6		3	5
			4			
		3			1	9
		9	3	4		7
5			9	6	8	
7	9	8			4	
				4		
6	4			7		1

“日서 소파보러 와요”... 100년 기업·글로벌 시장 향해 ‘착착’

Q 르포 | 자코모 직영플래그십 남양주본점

지하철 4호선 오남역 3번 출구를 나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JAKOMO’라고 쓴 선명한 글씨와 건물 몇 개 동이 보인다.

‘현빈 소파’로도 잘 알려진 자코모의 본사이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플래그십 남양주본점이다.

2021년 당시 공중파에서 방영,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웬트하우스’에서 배우 이지아의 사무실 등으로 쓰였던 공간도 바로 여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에 일본 방문객들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다. 한국에 관광왔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이곳에 들러 소파를 보고 사진을 찍고 가는 일본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공항 철도와 연결된 서울역에서도 4호선 지하철도 19개 정거장, 시간으로 50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를 걷는다.

“일본 고객들이 이곳까지 찾아 올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본의 대표적인 가구회사인 ‘프랑스베드’ 관계자도 있었다. 한국의 자코모라는 곳을 알아보고 회장이 지시해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나중에 일본에서도 우리 제품을 팔아보겠다고 정식 요청이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 도쿄 롯폰기에 프랑스베드와 컬래버 스토어를 열었다.”

남편 박재식 회장과 함께 1986년 당시 재경가구산업(현 자코모)을 창업한 박경분 부회장이 소름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설명했다.

‘재경가구’는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들었다. 그 후로 바뀐 사명 ‘자코모(JAKOMO)’는 재경(Jaekyung)의 JA, 코리아(Korea)의 KO,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가구를 뜻하는 모빌리(mobili)의 MO를 조합해 만들었다. 자코모는 40년 가깝게 한 우물을 파

며 100% 자체 디자인, 100% 자체 제작의 원칙을 지키며 소파 전문회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은 840억원을 기록했다.

박 부회장은 “일본시장은 우리의 품질을 갖고 해외에 한번 수출해보자고 마음 먹고 난 후 찾아온 기회였다. 일본 가구시장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프랑스베드와 협업체 2호 매장도 11월에 추가로 연다. 내년까지 일본 전역에 30개 이상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족 소파관, 패브릭 소파관, 아울렛관, 디자인하우스로 구성된 직영플래그십 남양주본점에서 자코모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4계층으로 이뤄진 신관은 ‘가족 소파관’으로, 가장 비싼 하이엔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래그십 모델까지 제품을 두루 갖추고 있다.

100% 자체 디자인·제작 원칙 지난해 기준 매출 840억 기록 日 가구회사 ‘프랑스베드’ 협업

자코모 최중금 부사장은 “우리는 100% 주문 제작을 한다. 디자인은 300여 가지에 달하고 컬러, 크기 등에 따라 총 1만5000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 고객이 취향과 니즈에 맞춰 주문하면 공장에서 제조해 약 한 달 정도면 맥으로 제품을 배송한다”고 설명했다.

단일 소파 전문 전시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이곳에서만 230종류 이상의 제품을 체형하고 구입할 수 있다.

소파를 100% 자체 제작하는 자코모는 공장만 현재 6곳을 가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포천 내촌공장은 남양주본점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에 위



박경분 자코모 부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치해 있다. 그런데 공장 내부로 들어서니 가구공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본드 냄새가 하나도 나질 않는다.

박 부회장은 “2000년 당시 가구업계 최초로 이태리 밀라노에 디자인 R&D 센터를 설립했다. 그 후 이태리를 자주 오갔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한 가구공장을 방문했는데 특유의 본드냄새는 없고 오히려 향기롭더라. 사장에게 물어보니 소나무에서 나오는 천연 송진으로 접착제를 만든다고 하더라.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의 한 유명 본드회사에 제조를 의뢰했더니 만들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3배 더 비싼 친환경 접착제를 수입해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사람의 무게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이탈리아산 더블 코일밴드도 자랑하며 설명했다.

“더블 코일밴드는 200kg 무게의 곰이 10년 이상 앉아도 꺼지지 않을 정도로 탄성이 뛰어나다. 국내 제조 밴드는 한번 꼬아서 만드는데 이태리산은 두번 끈다. 처음엔 국내 밴드가 이태리산과 구별이 안돼 현지 제조사에 제안해 밴드에 이태리 국기 모양을 넣어달라고

했다. 이 무늬가 그것이다.(웃음)”

자코모는 현빈 직전엔 배우 이서진을 모델로 기용했다.

박 부회장은 “그때 광고부터 강조했던 것이 ‘다르게, 더 빠르게 만듭니다’였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슬로건하고 똑같이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속까지 꼼꼼하게 만드는게 우리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단일 소파 전시장 ‘국내최대’ 규모 본드 대신 천연송진 접착제 사용 ‘소파 아카데미’ 설립해 기술자 육성

자코모는 동종 업계보다 25년 가량을 앞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다. 서울을 립픽이 열렸던 88년부터다.

“당시 가구업계는 한 달에 두번 쉬는 게 일반적이었다. 생산량은 늘어 바쁜데 아침에 출근하면 기술자들이 월급을 줘주던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모 계약회사에서 격주 5일제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아예 주 5일제를 하자고 했다. 생산량만 맞추면 충분히 가능했다. 그후부터 이직률이 크게



자코모 직영플래그십 남양주본점 전경.

줄었다.”

박 부회장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늦깎이로 대학에서 실내디자인도 공부했다. 그래서 자신을 ‘99학번’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100년 기업’은 창업자에게 화두다. 현장에 있는 기능공들이 육순이 되고, 칠순이 되는 모습을 지나칠 수 없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소파 아카데미’를 설립해 기술자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명 정도씩 6개월 과정을 거친다. 그 기간에 월급도 다 준다. 현재 5기생까지 배출했다. 교육을 진행해보니 약 40% 정도만 졸업을 하더라. 아카데미 출신들은 공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독립해 사장이 되면 소파 잘 만들어서 자코모에 납품하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밀어주겠다는 약속도 한다.”

토종 브랜드 자코모는 100년 기업을 향해가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오남(경기 남양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차세대 실버라이프 사업 진출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설립 실버세대 생애주기 전반 케어

코웨이가 차세대 실버라이프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

코웨이는 지난 10월 2일 프리미엄 라이프 솔루션 전문 기업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 법인은 코웨이가 100%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다. 초기 자본은 100억원 규모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존 장례 서비스를 넘어 실버 세대의 생애주기 전반을

케어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및 실버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문화 ▲여행 ▲숙박 ▲결혼 ▲패션 ▲요양 ▲장례 등 실버 세대의 건강과 여가를 케어하는 다양한 라이프 솔루션 상품들로 채워진다.

코웨이 관계자는 “실버 세대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차세대 실버라이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서울 서남권역과 청년 창업기업 지원

자치구·대학 등 13개 기관과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과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서울 서남권역 자치구, 산업계, 대학 등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을 비롯해 서울 서남권 6대 대학(강서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5개 자치구(강서구청, 관악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동작구청) 및 2개 지원기관(서울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한다. 자치구는 창업기업 지역정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지원기관은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다.

특히, 중진공은 서울 서남권역에 위치한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인프라 및 창업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 발굴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 등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서비스 강화

이노비즈협회가 회원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24년 하반기 회원서비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앞서 지난 2월 회원사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회원 서비스 수요조사’와 ‘신규 회원 서비스 제안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에는 ▲러닝팩토리(AI스피킹 학습지원·협업관리 솔루션) ▲벨라비타(경조사 액자화환 서비스 및 상호 서비스 할인 혜택) 등이 두루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대선, 혼전 속 트럼프 근소 우위... 아랍계 유권자 트럼프 지지 /사진 뉴시스
▲트럼프 “해리스 지능 낮다” 독설... 히스패닉 유권자에 구애

▲해리스 “트럼프, 개표 완료 전 승리 선언할 수도... ‘선거 불복’ 대응 준비”
▲시진핑·푸틴 “우리는 동맹·대결 않아... 세계질서에 모범될 것”



▲美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1명 사망·49명 입원... 원인 ‘양파’ 지목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북한군 1진, 오늘 안에 쿠르스크 도착할 듯”



뷰티 분야
출사표 내는
식품업체들
나



Life

CJ올리브영
라이브방송 전용
스튜디오 공개
L2



DDP 지붕 걸으며 도심 구경을 “이색체험 ‘루프탑 투어’ 즐겨요”

서울시, 내달 17일까지 시범운영
지붕 일부 총 280m 30여분간 투어
내년부터 코스 확대해 정식운영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지붕 위를 걸으며 도심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DDP 루프탑 투어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루프탑 투어는 비정형 알루미늄 패널과 사막식물 ‘세덤’으로 이뤄진 숨겨진 공간 ‘지붕’을 만나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DDP 지붕 일부 총 280m를 30여분간 직접 걷고 즐길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코스를 확대해 봄(5월)과 가을(9~10월)에 루프탑 투어를 DDP 정식 콘텐츠로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기간 중 매주 금~일요일, 오후 1시 30분과 3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DDP 루프탑 프레스 투어’에서 DDP 루프탑을 걷고 있다. /뉴시스

30분에 하루 두 번 운영된다. 만 18~70세 성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1회당 투어 인원은 안전을 고려해 10명으로 한정했다. 투어 시 기념수건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안전 그네,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DDP 루프탑 투어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외국인 포함)은 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전 장비 착용

후 DDP 지붕 위를 걷는 프로그램 특성상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참가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DDP 루프탑 투어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시의 또다른 매력 콘텐츠”라며 “DDP의 지붕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여유를 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독일서 유럽 한국어교원 연수

유럽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서울시교육청은 주프랑스한국교육원 및 주독일한국교육과 함께 오늘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권 한국어채택교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연수는 유럽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 대상은 K-Pop 및 K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은

유럽 10개국의 각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원 38명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수법,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으로 유럽 내 한국어 교육여건을 고려해 현지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한국어교수법 시간에는 서울시교육청 다+온센터 한빛마중교실에서 중도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초청해 수준별 한국어교육법 등 외국인 눈높이 맞춤형 교수 방법으로 실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교육공무원 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663건

학생 우려에 징계 더욱 강력해져야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합산

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문 의원은 “최근 답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민원, 1년 새 2.5배 ↑

권익위, 민원분석 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 9월, 공유자전거 민원 580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23일 권익위가 최근 3년간 민원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올해 9월 기준 580건으로, 전년 동월(233건) 대비 2.5배(347건) 증가했다.

올해 월 평균 민원 건수는 197건으로, 전년(323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었다.

민원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에서 누워 있는 공유자전거 때문에 인도가 좁아 급히 피하다가 그늘막 파사일에 자전거 운전대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유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주

차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해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AI·휴머노믹스 기술로 미래사회 논의한다

오늘 ‘경기도글로벌대전환포럼’ 개막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세계적 석학과 논의하는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오늘부터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

스(AI and 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는 민선8기 경기도의 정치철학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맨발 산책로’ 가이드라인 마련

동선분리 철저, 환경오염 최소화 등

서울시는 쾌적한 산책로 유지를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철저한 동선 분리를 통한 이용자 마찰 최소화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안전

사고 최소화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맨발 산책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기존에 맨발길로 이용돼 온 자연 지반을 우선 정비하되, 사용자 분리를 위해 일반 산책로와 맨발 산책로는 이용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9 | 해질 / 17:43

10월 24일 (木)
음력 : 9월 22일

수도권 날씨
7~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19, 동두천 5/19, 가평 4/19, 파주 3/19, 서울 7/19, 양평 6/19, 인천 9/19, 수원 8/19, 용인 8/19, 평택 6/19, 백령도 13/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범호 KIA 감독 “상황에 맞춰 최선 다할 것” /사진 뉴시스
▲KIA·삼성빼고 집합…류중일호, 24일부터 ‘프리미어 12’ 준비 돌입

▲서재응 전 KIA 투수코치, 이호준 감독 손 잡고 NC行…수석코치로 합류
▲북한 축구 국가대표 팀, 공항서 ‘겁라면 끼니’ 포착…힘겨운 월드컵 일정 수행



▲엔리케 생제르맹 감독, 이강인에 신뢰 표명…“내 팀 경기력에 만족” /사진 뉴시스
▲남자 배구 삼성화재 그로즈다노프, ‘화려한 데뷔전’…KB손보 3-1로 제압



세상을 바꾸는 금융

가족들을 위한 준비부터

시니어의 모든 행복이 쭉~ 이어지도록

#3 상속 설계 편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주를 보면 볼수록

해주고 싶은 것도 더 커지는
당신의 마음을 알기에

전문가들의 꼼꼼한 자산 컨설팅부터
진심을 온전히 전하는 상속 설계까지

행복한 상속, 시작부터 끝까지
KB가 함께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Korea Best
KB금융그룹

가업승계까지

[KB위대한유산]

[KB GOLD&WISE the FIRST 패밀리오피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액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대한유산서비스를 통해 신탁계약 체결 시 기본보수, 운용자산 별 관리(운용)보수 및 집행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073호(2024.10.21), 유효기간 2024.10.21~2025.09.30까지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라이프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b KB 금융그룹